

## 식품의약품안전처,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With-U)'...신속한제품화지원

### 전남 화순에서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 심포지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한 규제정보 제공'이라는 주제로 전남 화순군 소재 '하니움'에서 3월 16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With-U)'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통이 어려웠던 지역을 찾아 의약품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규제 동향 소개 ▲백신 제품화지원 전남 기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화순) 출범 의의와 역할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논의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

다드화 하는 동시에, R&D 코드,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신속심사를 제공하는 브리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With-U)'과 같은 규제 전문가가 밀착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제품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허가·심사에 대한 예측성도 높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이 개발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With-U)'을 적극 운영하여 국산 혁신제품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성지아/기자



## 충북도, 국내 최대 전기차산업 박람회 참가해 관련 산업 투자유치에 전력투구

### 이차전지 최대 생산기지,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 등 내세워 투자유치 홍보

충청북도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국내 최대 전기차 박람회인 'EV (ElectricVehicle) Trend Korea 2023'에 참가해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행사는 현대자동차, 기아, 볼보트럭 등 글로벌 EV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상용차 기업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수의 EV 충전기 및 인프라 기업들이 참가해 예년보다 더욱 다양하고 확장된 EV산업 트렌드와 최신 E-모빌리티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6회차를 맞는 대한민국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인 'EV 트렌드코리아 2023'은 환경부 주최, 서울시가 후원하고 코엑스와 한국전지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전기차 박람회로 현대차·기아 등 총 100여개사가 참여해 400여개 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충청북도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오창 이차전지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이차전지 소재부품시험평가

센터 구축,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선정 등 미래차 관련 R&D 인프라와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장점으로 투자유치에 좋은 충북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 홍보관을 열고 충청북도가 이차전지 최대 생산기지인 점과 이차전지 앵커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양극재, 전해질 등 핵심소재 생산업체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 배터리 밸류체인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유치를 적극 홍보하고, 참가기업 관계자와의 투자상담을 통해 EV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조경순 충청북도 투자유치국장은 "충북은 미래차산업의 떠오르는 메카로 연구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며 "특히 이차전지 분야에서 충북이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경북도, 캐나다 주방용 무인로봇기업 게스트로노머스(Gastronomous)와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15일(수) 푸드테크(Food Tech) 산업 주도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캐나다 주방용 무인로봇 개발 생산기업인 게스트로노머스(Gastronomous)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과의 3자간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 정구봉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케복 세바드지안(Kevork Sevadjian) 게스트로노머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간 원

### 주방용 무인로봇 공급망 확충 및 도내 제조시설 건립

격 화상회의 줌(Zoom)을 통해 이뤄졌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Oakville)에 본사를 둔 게스트로노머스는 상업용 식당 및 식품제조업체에 주방용 로봇 등 기술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로봇을 활용한 완전 자율주방 구현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이달의 경제부지사가 이끄는 경제사절단 일행이 캐나다 토론토 본사를 방문해 경북도에 소재한 로봇 제조기업과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로봇관련 부품·소재 생산업체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미래 유망산업인 주방로봇산업의 연구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지난해 9월 포항시·포스텍·한국푸드테크협의회·경북경제진흥원간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관련 산업 육성과 외식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K-키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푸드테크는 올해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CES 2023)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은 기술 집약 산업으로 그 중에서도 스마트 주방 및 식당을 구현하는 로봇기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뉴로메카, 플라리스3D 등 주방용 로봇 기업들의 도내 투자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협약은 그 의미를 더한다고 볼 수 있다.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연구개발 및 상용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을 경북이 주도하기 위해 도내 소재 정부지원 유일 기관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협업해 게스트로노머스와 같은 글로벌 유망기업을 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기업과 생산협력, 기술협약과 투자가 더 많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GOOD AIR CITY 인증도시

# 대한민국의 숨, 울진

## 대한민국이 숨쉬고 모두가 함께 숨쉬는 땅, 울진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동해바다의 푸른공기와 금강송의 맑은공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맑은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 인증도시)울진을 상징합니다.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9일 제368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1달여 만이다.

신민호 의원은 "생활보조비 지급은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의미"라며, "많이 늦었지만,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75년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

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급 금액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전남도가 정하도록 했다.

조례의 시행일은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진행 중인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2024년 10월 6일이다. 희생자 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족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신 의원은, "유족들은 국가폭력의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과 연좌제란 또 다른 폭력,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생활보조비 지원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 의원은 "추정 피해자가 만 천여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지

만,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는 현재까지 6,794건"이라며,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유족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생활보조비 지급 범위와 지급 시기, 예산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유족회와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와 정부와 강력히 촉구했으며 국회에 직접 방문하는 등 여순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해명/기자

# 인구소멸위기 대응, 지역형 콘텐츠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필요

## 경북도의회, 「지역콘텐츠활성화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지역콘텐츠활성화연구회」는 지난 14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역형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정책사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의 대표인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콘텐츠활성화

연구회 회원과 의회 상임위원회 직원, 도집행부 소관부서, 외부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

안 추진해 온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해 점검하고, 지역형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활성화 전략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상북도의 다양한 지역별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과 지역별 브랜딩 방안 등을 마련하고,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과 관련된 조례 제정 등 입법적 기초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이선희 의원의 주

도로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됐고, 4개월에 걸쳐 연구가 추진됐다.

본 용역을 수행한 조재근 (순천리서치엔지니어링대표)은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청년인구 유입 사례와 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국내외 우수 사례를 제시하고, 경북형 콘텐츠 활성화 추진전략으로 4대 전략 방향과 8대 대표 과제를 제안했다.

윤근수/기자

# 이종태 서울시의원, 서울시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 갈수록 심각

서울시 중학교의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비율로 본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자료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에 의해 공개됐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소재 393개 중학교 졸업생(2023년 기나 준 73,925명)의 지난 5년간 고교입학 경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별첨#1), 2023년 입학기준으로 볼 때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비율이 상위 20위 안에 드는 중학교의 절반이 강남서초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 50위 안에 드는 중학교는 강남서

초 18개, 강동송파 8개, 중부 5개, 성동광진 6개, 성북강북 4개, 서부, 동부,강서양천 각 3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부, 남부, 동작관악 지역의 경우 한 학교도 5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과학고·특목고·자사고에 진학한 학생의 평균 비율은 15.0~16.2% 사이에 있는데, 50위권은 25.8~29.3%, 20위권은 34.1~37.9%, 10위권은 47.6~55.3%로 나타났고,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고로 높은 중학교는 59.3~77.6%로 조사됐다"(국제중 제외)고 밝히고, "어떤 지역은 한 학교도 50위 안에 들지 못하는데 비해 특정 지역은 다수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에 따른 교육환경 격차가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강남서초의 경우 2019년에 13개 학교가 50위 안에 들었지만 5년 만에 18개 학교로 증가했고, 반면에 타 지역은 현상유지 내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갈수록 지역별 격차는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생 평균비율을 보더라도 강남서초는 29.1%로 낮은 지역보다 4.6배로서, 5년 전 2.5배보다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어 문제"(별첨#2)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교육환경 격차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수원시,수원시의회 의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

## '2023년 시의원인권리더십과정'개최

수원시는 16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2023년 시의원 인권리더십과정'을 열었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요청해 이뤄진 이번 인권교육은 우리나라 최초로 '인권도시' 개념을 도입한 김중섭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인권 증진과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김중섭 명예교수는 "정책 집행 결정자인 시의원들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친화적인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해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의원들이 '인권 리더'로서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원의 인권 인식과 수원특례시 인권 제도의 이해 ▲수원

특례시 인권정책 발전의 방향과 방안 ▲지역사회 인권 증진 방안과 지방의회의 역할 ▲직장 내 갑질 관련 사례 및 조례 제정 등을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직자 인권교육 의무이수제'를 도입하고, 시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인권교육을 운영해 수원을 새롭게 하고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인권교육 의무이수제'는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이 목표다.

조혜영/기자

# 경남도의회 박동철의원 "진해지역 준벽지학교 지정 제안"

창원시 진해구 지역의 교육력 결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창원시 진해구 준벽지학교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 관내 20개 지역 분석 결과, 지역에서 근무한 교사가 승진할 수 있는 교사 유인책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 창원시 진해구로 나온 것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동철(창원14, 국민의힘) 의원은 제40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창원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과거 도교육청의 준벽지학교의 지정이 교통 및 목욕탕, 미용실과 같은 물리적거리가 중요한 요소였다면 향후에는 교사들의 심리적거리도 중요한 요소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벽지학교는 승진 가산점을 위해 섬지역 학교가 많은 현행 도서·벽지 지역으로 교원들이 쫓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도서·벽지학교 못지 않게 생활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교 근무 희망 교원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학교의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또한 박의원은 매년 타지역 승진 교감의 발령과 짧은 지역 근무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 및 중장기적 진해 교육 발전에 대한 구심점 역할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관내 교감 승진자의 부재는 지역 출신 교감의 부재로 귀결되며, 이는 학교 및 지역의 중장기적 교육 현안에 대한 관심과 구심점 역

할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의원은 "진해 지역의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근무 기피 학교(관내 학교급지가 낮은 학교)들이 많아 진해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재현/기자



더 크게 들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 용인특례시의회

# 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2023. 3. 9. (목) ~ 3. 14. (화) 6일간

용인특례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라이브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https://council.yongin.go.kr>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계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 계 부:대선 (114)	문 화 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스프츠부:대선 (115)	문 화 부:대선 (117)
		부동산부:대선 (118)
		요커니언부:대선 (119)
		지 방 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작년 불법성산업알선·광고 14만여건 적발 "역대 최다"

###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 조치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묘하게 성매매를 유인하는 문구나 분마다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성매매 광고 등을 접하게 됐습니다.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사진을 접하면서 심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성매매 광고에 화도 나는 등 감정적인 소모가 컸습니다. 분명 문제가 존재하는데 외면하고 덮어둔다면 더 심각해질 것이고, 저 말고 다른 감시단들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고 꾸준히 활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 인터넷 시민감시단 임○○ 씨사 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상에 파고든 불법 온라인 성매매 알선·광고를 감시·신고하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작년 한 해 총 14만1,313건을 적발했다. 2011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년('21년 10만8,894건)보다 1.3배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온라인 활동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신고 키워드 검색 방법 등 노하우 제공, 온라인 모니터링 교육 확대 운영(4회→7회), 신고 이벤트 실시 등을 통해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중 온라인 사업자와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13만6,314건을 신고해서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광고가 12만735건(88.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이트 1만5,061건(11.0%) ▲랜덤 채팅앱과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ID) 518건(0.4%) 순이었다.

내용별로는 ▲출장안마, 보도, 애인대행 등 출장형 성매매 알선·광고가 7만2,814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조건만남 광고 2만5,498건(18.7%)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조건, 연락처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 2만337건(14.9%)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및 의심업소 구인광고 1만5,346건(11.3%)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 2,319건(1.7%) 순이었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2011년 발족한 시민 참여 온라인 모니터링단으로,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와 공동 운영한다. 20대 대학생부터 직장인, 퇴직자,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시민 1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은 온라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매매 알선·광고를 찾아 신고하며 유해환경 차단과 관련차 처벌 등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활동한 감시단을 연령대별

로 살펴보면 20대가 46%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30~40대가 41%,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14%를 차지했다. 특히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에 힘입어 남성의 감시단 참여가 증가했고('21년 17% → '22년 30%), 2년 이상 꾸준히 활동하는 시민들도 27% 차지하는 등 불법 성산업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 지속적인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성매매 예방 및 방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감시단 중 신고 실적이 우수하고, 성매매 유인환경 차단에 이바지한 활동가 13명을 선정해 3월 말 유공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불법·유해 정보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인 '반(反)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운영, 시민 감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이 플랫폼을 통해 성매매 의심업소, 학교 주변 설치금지업소 등 87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반(反)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에서는 주요 온라인 포털 사이트, 사회관계망(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앱(App) 상의 성매매 유인 및 알선 광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 업소, 성매매 암시 불법 전단지 및 문자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13기로 활동할 시민 1천 명을 16일(목)~31일(금) 선착순 모집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서



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로 이용하면 된다.

시민감시단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사전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고,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윤리강령 및 운영제책'을 준수해야 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인센티브(문화상품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단 전용 페이지를 운영, 모니터링 자료 업로드, 신고 방법 및 노하우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활동 편의를 지원한다. 특히 유해매체 모니터링으로 지친 몸을 이완하

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도 실시해 재충전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일상 회복이 단계적으로 이행되면서 일반 아르바이트, 유증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마사지 업소 광고 플랫폼 등을 통해 성매매 의심업소를 광고하거나 관련 업소 구인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감시와 신고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들 공고는 특정 성별과 연령대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마사지 관리사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초보환영, 근무시간과 출퇴근이 자유롭고,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과 일급 제공"을 강조하며 구직자를 유인하고 있다.

대부분 성매매 관련 문구(성매매 행위, 유형, 가격조건 등)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성매매처벌법' 외에도 '청소년보호법', '직업안정법', '식품위생법', '교육환

경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위반사항까지 신고범위를 확대해 불법 성산업을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가 청년층과 특정 성별에 집중되고 있어 시-다시함께상담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 직업정보제공 사이트상의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성매매처벌법' 상 위반행위 업소 및 관련자는 추가 증거를 채집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 한분 한분의 제보와 신고가 성매매 등 불법 성산업 추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누구든 성매매 의심업소나 광고를 봤다면 주저없이 '반(反)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이용해 제보해주시고, 올해 새롭게 모집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수/기자

## 송파구에 불어오는 '청렴 새 바람'...3월 셋째 주는 청렴 주간!

### 송파구, 매일 셋째 주 '청렴주간'으로 지정...다양한 캠페인 및 청렴행사 진행



송파구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대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공직은 엄중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청렴의 의무' 준수를 당부해왔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적행위, 금품 수수를 금지할 뿐 아니라 상호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까지 아우르는 청렴 실천으로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구는 민선8기 2년차를 맞아,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송파'를 구현하고자 한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매일 셋째 주를 '송파구 청렴주간'으로 정하고 청렴에 대한 다

양한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3월 14일을 '송파구 청렴데이'로 지정하여 서강석 구청장이 직접 나선 가운데 직원들의 출근길에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청렴메시지를 담은 '청렴캔디'를 직원들과 나누며 친근한 스킨십으로 송파의 청렴 문화 확산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청렴데이를 맞아 전 직원에게 '부패방지 청렴 칫솔살균기'를 배부했다. 유해 세균을 제거하는 칫솔살균기처럼 매일 곁에 두고 사용하며 우리 마음 속 부패도 살균하자는 송파구의 강력한 청렴의지를 담았다. 청렴 주간 동안 '청렴 아침방송 채널지'와 신규공무원 청렴교육, 송파구 청렴레터 제작 등도 이어져 전방위적인 '청렴 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개칭 이래 최초로 전 부서는 물론 구 산하 기관까지 참여하는 자율형 청렴문화 실천 협의체

인 '송파구 청렴문화 혁신밴드'를 출범하고 지난 2일 발족식을 가졌다.

'송파구 청렴문화 혁신밴드'는 업무 분야에 따라 각 부서 및 기관을 11개의 밴드로 재구성하고, 밴드별 업무 특성에 맞는 청렴정책을 발굴하며 정기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나눌 계획이다. 발족식에서도 39개의 청렴 실천과제들이 제안되어 직원들의 강한 청렴의지를 공유했다. 앞으로 구는 매년 3월 셋째 주 수요일을 '송파구 청렴데이'로 정례화하고 매일 청렴 주간을 운영하여 청렴캠페인을 연중 기획하는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렴정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청렴 정책 추진으로 창의와 혁신, 공정이 실현되는 '구민이 주인이 되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 금천구, 열여덟 어른의 홀로서기 사회 정착 지원

### 자립준비청년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금천구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교육 '독립만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이다. 올해 신규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 예정 청년, 기존 자립준비청년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청년 17명이 참여한다.

'독립만세' 자립교육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에,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외부 교육장(안양예술공원 대 블루몬테)에서 개최한다.

3월 18일 1차 교육에서는 △ 아이스 브레이킹 △ 자립선배 이야기를 통한 '자존감 회복' △ '가치발견'을, 3월 25일 2차 교육에서는 △ 경제적 어려움 대처법, 각종 지원제도 활용법 등을 배우는 '경제교육' △ 임대

차계약, 근로계약 개념과 사례별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법률교육' △ 반려식물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 이후에는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1:1 멘토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고충 및 욕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외부기관에 서비스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자립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이 혼자 설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에서 맡으며, 보육원 출신에서 사회적 기업 대표로 성장한 김성민 대표가 직접 강의를 참여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삶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한 발 더 씩씩하게 나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신/기자

## 서대문구, 이대 앞 상권 업종 제한 사실상 폐지..지역 활성화 기대

서대문구는 이대 앞 상권인 대현동 37-32번지 일대의 건축물 권장 용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0여 년 전인 2013년 9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의류·잡화 소매점과 미용원을 권장업종으로 정한 바 있다.

권장업종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하지만 권장용도로 사용하던 부분을 타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야 해 사실상 입점 가능 업종이 제한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시장 여건이 변화하며 기존 권장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돼 상가 공실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이달 1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권장

업종을 음식점, 제과점, 공연장, 전시장, 서점, 도서관, 사진관, 학원, 체육관련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구는 이번 권장용도 확대 외에도 올해 '신촌·이대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내년에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등 장기간 체재된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권장용도 확대도 다양한 형태의 점포가 들어와 이대 앞 상권에 활기를 줄 것으로 전망하며 나아가 신촌 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일들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이상일용인특례시장, "정부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용인남사선정 대환영"

## "용인을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도시로 도약시킬 원대한 계획"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시장은 15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를 710만㎡(약 215만평)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용인특례시 발전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반도체를 비롯한 6대 첨단산업에서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화성·평택 캠퍼스와 별개로 용인 남사에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반도체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고,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126만평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SK하이닉스와 50여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예정) 조성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남사에 215만평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고 반도체 역량을 키워 대한민국의 반도체 초

격차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그간 강조해온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와 부합하고, L자형 반도체 벨트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순탄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 방침에 맞춰 인허가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대학원 지정, 창업중심대학 지정, 반도체 마이크로 지능 등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며 "용인특례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이 성사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용인 판내 대학들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계약학과를 맺고, 반도체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방침대로 용인 남사에 대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용인특례시는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남사 국가첨단산업단지), 차세대 반도체 연구



허브(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소재·부품·장비 기업 클러스터(원삼·남사 클러스터와 기흥 플랫폼시티)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지닌 도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반도체 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현진도 도시 용인의 도로·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와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가 더욱더 갖춰져야 한다"며 "시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겠지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불가결한 만큼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번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산단 조성 단계부터 에너지 자립과 스마트 기반 시설을 넣고 상업·주거·각종 편의 시설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과거 조성된 국가산단과 다른 것으로,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며 "용인특례시는 남사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일하기 좋고, 교통 좋고, 살기 편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기업과 협의하겠다.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지혜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영기자

# 인천TP, 미래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뒷받침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역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 전환을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 사업비 10억4천만 원을 들여 핵심부품 및 차량 통신·보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친환경·지능형 자동차부품 △커넥티드형 통신 모듈 부품 등 2개 부문으로 한 기업에 많게는 8천만 원까지 개발비용을 지원한다.

미래차 공용부품, 친환경 핵심부품, 신기술 개발(모터·배터리 재활용 등) 등 친환경·지능형 자동차부품 부문에선 8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반 커넥티드카와 관련된 지능형 핵심부품, 차량 통신·보안, 차량용 서비스 기술 등 커넥티드형 통신 모듈 부품 부문에선 5개 안팎의 기업을 선별해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27~31일 기업지원정보제공 사이트 비즈오케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오케이 또는 인천TP 누리집을 열어보거나, 인천TP 자동차산업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TP 관계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차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며 "인천지역 내연차 부품기업이 미래차 관련 기술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 성남시 '넓은 주택 에너지 효율 높이세요' 최대 1000만원 지원

## 사업비 총 2억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성남시는 소규모 넓은 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개선 공사하는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이를 위해 올해 2억원의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7일까지 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넘은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면적 660㎡ 이하의 상가 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다.

지원금 지급 범위는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단독·다가구 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 ▲천장·내·외부 단열공사 ▲형광등·백열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며, 순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는 대상 건축물 소유주는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공고)와 관련 서류를 시청 7층 건축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건물 구조, 주택 규모, 소유자 거주 연수,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4월 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성남시는 이 사업을 2020년 처음 도입해 지난 3년간 78가구에 2억 3300만원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이뤄 나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욱기자



# 평택시 '메타버스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운영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교 학생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오는 28일(화), 31일(금) 총 2회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메타버스 아로마 힐링테라피에 이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주제로 △스마트폰 사용조절 방법 △자녀와의 대화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전문 강사가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우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청소년의 3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여 과의존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대상) 초·중·고학년 ~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

17: 2023.3.28.(화) 16:00~17:00  
27: 2023.3.31.(금) 16:00~17:00

- **선박1차** 관내 초·중·고 및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 / 20명
- **선박2차** 23.3.20(토)~3.24(화)
- **선박3차** 관내초·중·고(선생님 2명)
- **선박4차** 01-031-8024-4461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 로데오거리에 불어오는 아름다운 변화의 바람... 시흥시, 신천역세권 활성화 주력

민선 8기를 힘차게 순항 중인 시흥시는 시민 행복을 위해 시흥 곳곳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중 공약사항으로 내건 신천동 로데오거리 등 '역세권 활성화 실현'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민이 편안한 시흥시'를 위해 마을 어느 곳이든 걱정 없는 안전한 마을환경을 만들고자 섬 없는 활동으로 분주한 시는 신천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 및 교통 환경 개선 ▲골목길 환경개선 ▲주민편익시설 확충 ▲주민공동체 연계 등을 올해 목표 활동으로 설정하고,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안전한 상가거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로데오거리 내 주차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거리 주변의 부설주차 공간 등을 적극 발굴 공유하는 △나눔주차장 조성 사업과 △거주자(상가) 앞 우선주차 시간제 시행을 통해 거리 질서를 회복하고,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의를 제공한다.

시는 기존 주차장 개방시설 외에 지속적인 추가 개방 협의를 힘써 아 고질적인 도심 주차난을 해결함으로써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한 불씨를 당길 계획이다.

또한, 현재 양방향으로 운행되고 있어 잦은 사고와 함께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신천로 100번 길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변 대도시아파트 입주 주로 급격한 교통 환경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도로의 신호등을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신호체계 정비로 안전도시 조성에 한걸음 더 나아가 갈 예정이다.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골목길 환경개선'에 더욱 집중한다. 그간 주력해온 '무연고 위험감판 정비', 기능을 상실한 '가로시설물 통합·제거·도색사업', 지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사업 등에 이어 복잡한 도시를 비우고 정리하는 데 힘쓴다.

특히 보행로 주변의 건물주와 협의해 노후 된 판벽과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정비하고, 무단투기 취

약지에 거리벽화를 가꾸는 등 보기 좋고 걷기 편한 '로데오거리'를 탈바꿈해 특색 있는 거리로써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변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4월에는 로데오거리 내 디자인펜스 및 조명 설치, 6월에는 지난해 추진했던 라바 특화거리(신천로 100번길 일원)와 연계해 캐릭터 벽화 설치를 실시한다.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편익시설 확충 사업도 지속한다. 지난해 노후된 현진어린이공원(신천동 775)을 3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테마공원(어린이놀이시설, 농구장, 잔디공간 등 조성)으로 변모시켜 주민 만족도를 높여왔듯이, 올해는 그동안 애물단지였다고 불렀던 신천동 42호 국도변 완충녹지대를 탈바꿈한다.

태풍 시 전도 위험성이 높고, 상가 간판 가림으로 주민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주 민원이었던 완충녹지의 높고 위험한 고목과 잡목을 제거하고, 관상목 중심으로 새롭게 꾸미는 대대적인 정비와 함께 흔들의자, 야외 테이블, 야자매트 길을 설치해 밝은 골목길을 형성함으로써 상권에 생생한 활력을 채워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정비과정에서 나오는 고목을 설치예술 작품으로 재활용하고자 지역 예술인들과의 만남을 진행 중이다. 풍부한 녹색 공간이 가득한 테마녹지로 재탄생되는 로데오거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웃음을 전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신천동 780(현진아파트) 놀이터에 나눔 컴퓨터를 조성해 마을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 사랑방을 선보인다.

주민의 손으로 이끌어내는 변화도시 형성을 위해 '지역 주민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연계와 협력사업'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정주의식을 갖게 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공동체 활성화에 힘을 싣는다.

앞서 지난해 로데오거리상인회와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는 재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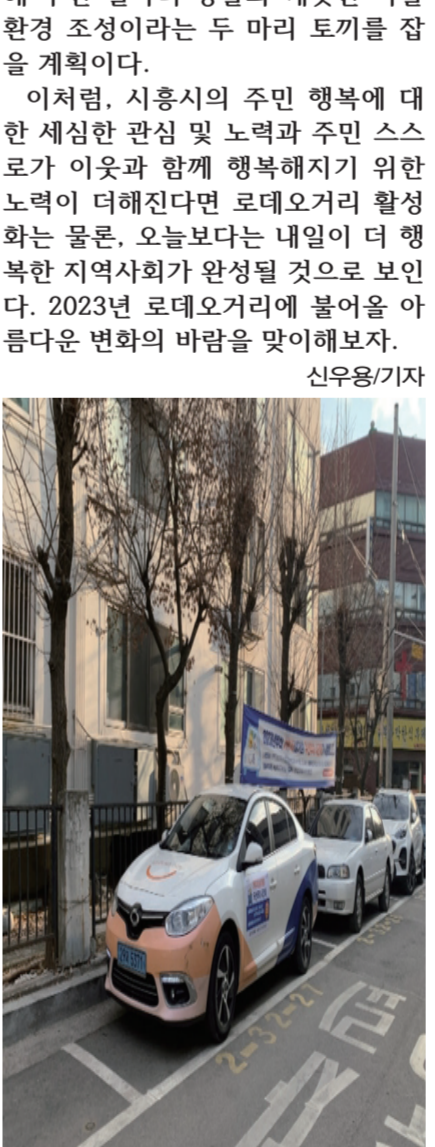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내 집(상가) 앞 스스로 가꾸기 운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주민들은 월 1회 환경정화활동 및 간담회를 추진하며, 스스로 안전한 마을 환경 가꾸기에 열정을 쏟아왔다.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스스로 마을환경 개선과 공동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향후 마을기업과 함께 수인로 테마녹지 조성사업, 마을갤러리 및 벽화사업, 나눔주차장 관리, 마을경관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등 사회적 공헌사업을 추진해 주민 일자리 창출과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이처럼, 시흥시의 주민 행복에 대한 세심한 관심 및 노력과 주민 스스로가 이웃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로데오거리 활성화는 물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지역사회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로데오거리에 불어오는 아름다운 변화의 바람을 맞이해보자.

신우용기자



# 고양시, 친환경 소각장 신규건설로 자족도시 '첫발' 내딛는다

고양특례시가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친환경 소각장 건립의 첫발을 땀다.

시는 108만 고양시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친환경 소각장의 신규 입지를 찾기 위한 고양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계획을 4월중 결정 공고할 계획이다.

친환경 소각장을 건립해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들이 찾아가 줄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민선8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신설 예정인 친환경 소각장은 고양시 자연순환 집행계획을 반영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 예측 결과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용량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시는 입지선정계획 결정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친환경 소각장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한다.

시가 친환경 소각장을 신규 건립하기로 한 것은 2026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양시 인구가 배출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연간 11만 2107톤으로 하루 평균 307톤이다. 이렇게 배출된 가연성 쓰레기들 중

고양시에서 소각되는 양은 4만4600톤으로 소각하지 못한 나머지 6만 7400톤은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친환경 소각장 건설은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를 통한 자족도시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역점사업"이라며 "향후 시민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고양시 생활폐기물**

고양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연간 112,107톤 발생

연간 67,474톤 반입

2026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친환경 소각장 건설로 자족도시로의 '첫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전 직원 청렴 다짐 결의대회 개최



안성시 일자리경제과는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5일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청렴 다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경제도시국장 및 일자리경제과 직원 30여명 참여했으며, 한마음으로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렴 인식을 향상시키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갑질 근절, 이해충돌 방지 등 부패 예방에 대한 청렴 의지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결의대회 이후에는 안성맞춤시장과 중앙시장의 각 점포를 방문하여 올바른 생활 폐기물 분리 배출 방법 및 1회용품 사용 규제 등에 대한 홍보

활동과 함께 청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와 결의를 시민과 함께 공유했다.

참석한 직원들은 작게나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전통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상인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청렴 다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렴 의무를 생활화하여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 매일 전통시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청렴의식을 다지는 한편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혁신포럼’ 연다

### 경기도 3월 20일 광고청사 대강당에서 [경바시]생성형 인공지능 포럼 개최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산업 분야와 도민에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오는 20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바시]생성형 인공지능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사람이 지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와 정보를 이용해 스스로 학습하고, 그 결과물을 창조적으로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기술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챗지피티(ChatGPT)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일종이다.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도민을 대상으로 여는 이번 기회경기혁신포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윤리, 창업,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식을 나눈다.

세부적인 발표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새로운 기회(장대익 가천대 교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와 윤리 및 사회적 이슈(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생성형 인공지능과 챗지피티(ChatGPT) 활용 전략(최재식 카이스트 교수)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인재와 비즈니스(차경진 한양대 교수)다.

발표 후에는 이원재 경기도 정책보좌관의 진행으로 주제 발표자와 윤석원 (주)테스트웍스 대표,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패널토론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각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도민에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오프라인 진행과 동시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송출할 계획이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도민의 생활과 행정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본격적으로 ‘경기지피티’ 구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23일 열린 도청 회의에서도 챗지피티를 언급하며 “작더라도 경기도정에 우선 적용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에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지피티’ 전담팀(TF)을 구성하는 한편 도와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피티의 도정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제안을 검토해 민원 서비스와 도정에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조혜영/기자



### 제13회 경기 화성 뱃놀이 축제,출항

오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전곡항과 제부도 일원에서 축제 개최



화성시가 오는 6월 열리는 ‘제13회 경기 화성 뱃놀이 축제’를 앞두고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축제의 첫 출항을 알리는 ‘제1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실, 국, 소, 장 및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등 총 40여명이 참석해 각 부서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로 자리매김한 화성 뱃놀이 축제는 ‘희망 넘치는 화성, 함께 즐기는 바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보다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해양 레저 체험과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야간 공연쇼를 한층 거대한 규모로 밤바다를 풍성하게 채울 전망이다.

시는 이와 함께 요트와 유람선 50척을 준비해 전곡항의 노을과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 LED 요트 승선 체험도 준비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해양·육상 체험 프로그램, 가족 낚시 페스티벌, 인기 가수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계획했다.

정 시장은 “이번 화성 뱃놀이 축제는 해양레저관광 시대의 서막을 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다채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하남시,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가공모사업 신규 선정

하남시가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가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돼 국비 6,000만원을 확보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1억 2,000만 원(국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추진 방향은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 환경 조성으로, 이를 통해 시민 모두의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는 것이 하남시의 최종 목표다.

이제 오는 4월부터 하남시장애인복지관, 하남시중합사회복지관, 경기도

지역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하남시지부를 중심으로 ▲직업연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문화예술·인문 교양 프로그램 ▲가족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한다.

시는 2019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학습 접근성 강화와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원재 시장은 “지난해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국무총리상(1등)을 수상해 하남시의 지력을 입증한 바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장벽을 허물고, 공감과 성장으로 모두가 함께 살고 싶은 배움이 가득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 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 교육훈련기관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3년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건설 관련 교육훈련기관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경기도의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 일자리 종합계획’의 하나로, 숙련건설기능인력의 양성과 건설현장 취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모집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자격요건과 훈련 기반 등을 확보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교육훈련을 위한 자체 교육장과 실습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육훈련은 ▲건축목공 ▲건설용접 ▲타일 ▲도장 ▲방수 ▲배관 ▲비계(형틀) 7개 직종별로 총 48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훈련기관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특화사업팀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와 관련해 20일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치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건설업종의 고용환경, 특히 숙련인력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며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건설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해소되고, 더 많은 도민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일자리재단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도내 13개 지역 32개 훈련기관이 지역별 거점 훈련기관으로 선정돼 총 1,985명을 숙련건설 기능인력을 양성했으며 그중 1,070명(53.9%)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혜영/기자



## 경기도교육청, IB 관심학교 운영으로 경기형 IB 프로그램을 위한 초석 놓다

###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2023학년도 IB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2023년 IB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학생의 창의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우도록 힘쓴다.

도교육청은 단편적 지식 암기와 출제자 의도에 맞는 정답 찾기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형 학습체제의 전환을 모색하고, ‘탐구-실험-성찰’ 중심 수업과 이에 따른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경기형 IB 프로그램’의 초석이 될 관심학교 25교를 선정하고 관심-후보-인증학교의 단계별 운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관심학교 운영단계부터 지역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및 학생 선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기형 IB 프로그램’의 구축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관심학교는 학교 구성원이 IB 철학

과 교육목표를 이해·공유하며 운영과제 실천에 노력하는 학교로, 신청한 59교 중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25교(초 14교, 중 11교)를 선정했다.

주된 과제는 ▲학교장 및 업무담당자 IB 워크숍 필수 참여 ▲IB 탐색 전문학습공동체 운영 및 학교교육활동 연계 방안 모색 ▲IB 본부 컨설턴트와 교육청 지원을 토대로 한 IB 후보학교 신청 준비 등이다.

후보학교는 전 세계 IB 학교에서 공유하는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해 IB 수업과 평가를 일부 설계 적용할 수 있고 IB 컨설턴트 방문 및 온라인 지원을 받으며 IB 인증학교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학교는 IB 본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을 받은 학교로 IB 수업과 평가 전 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관심학교를 시작으로 후보학교와 인증학교의 단계별 확대



를 추진하고, 희망하는 학교가 IB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원 실천 역량 강화를 목표로 ▲IB 국제공인 전문 강사 70명 양성 ▲대학 연계 IB 전문가(IBEC) 100명 양성 ▲미래교육 IB 학습회의(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또한 교육공동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명회, 토론회 개최 ▲IB 프로그램 이해 연수 운영 ▲IB 프로그램 이해자료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

울일 계획이다.

도교육청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은 “IB 관심학교 운영, 교원 실천 역량 강화, 공감대 확산을 중심으로 경기형 IB 프로그램의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 및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반영한 IB 수업과 평가를 지원해 학생이 창의 비판적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정책의제 ‘공론장’에서 도민소통 강화할 것!”

경기도의회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개최식을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주요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을 집중 논의할 공론장을 마련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릴레이 형식의 토론회다.

올해 100회를 걸쳐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도민과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광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 김정영 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등 도의원과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경기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제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제안해 시작된 정책토론회가 올해로 만 5년을 맞았다”라며 “온라인으로 송출된 토론회 영상 중 조회수가 높은 것은 10만 회

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고,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벤치마킹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30회로 시작해 올해 100회를 계획하기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했기 때문”이라며 “정책토론회 과정에서 주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며 도민 삶에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한 개 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발굴한 과제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고, 이경희 제1부교육감

은 “올해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할 의미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날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 중 도정 및 교육과 관련한 주요정책과 지역현안을 주제로 총 100회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각 토론회는 좌장 1명, 발제자 1명, 토론자 4명 등 총 6명 안팎의 패널로 구성되며,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전문가가 발제하면 의원과 공무원,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다.

조혜영/기자



# 경상남도, '워크에이션'으로 새 단장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등 근무방식의 변화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근무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는 추세를 반영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워크에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조성사업 대상 10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워크에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제도를 말한다.

이에 워크에이션의 최적 조건으로 친환경 지역, 한적한 자연 명소가 각광받고 있다. 경남도는 기존 농촌체험마을 중에서 우수마을 10곳을 선정하고 노후된 숙박시설, 회의실, 체험시설 정비 등 마을환경을 새롭게 정비하고 워크에이션 유치에 나섰다.

이번 선정된 마을은 ▲창원 빛돌배기마을 ▲진주 정수문화마을 ▲사천 초량다슬기마을 ▲거제 둔적시골마을 ▲창녕 성곡오색별빛마을 ▲고성 송천들마을 ▲남해 해바리마을 ▲하동 의신배어빌리지 ▲거창 빙기실마을, 기리창조적마을이다.

창원 빛돌배기마을, 사천 초량다슬기마을, 남해 해바리마을, 거창 빙기실마을 등 4곳은 지난해 말 전국 농촌관광마을을 평가에서도 1등급인 '옴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동군 의신배어빌리지는 지리산 국립공원 내 하늘 아래 첫마을로 계곡 등 천혜의 자연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멸종 위기종인 반달곰 탐방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남해군 해바리마을은 호수 같은 강진만 연안에 위치하여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고 있어 반농반어촌의 특색있는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편백숲 및 해안산책로 힐링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거창군 빙기실마을은 덕유산 국립공원 내 빙기실 계곡이 있어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업무를 할 수 있는 마을로 트레킹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 외 나머지 마을도 농촌 고유의 모습을 보전하면서 도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워크에이션 근무의 최적지로 평가된다. 도내에는 136개의 농촌체험 휴양



마을이 있으며, 워크에이션 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국내 최대 기업신용평가전문기관인 한국평가데이터(주)와 (사)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숙박, 농촌체험관광 등에 대한 예약·결제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강승제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방문객 및 매출액 감소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촌마을에 기업의 워크에이션 근무를 통하여 농촌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시민과의 교류확대로 지속가능하고 살기좋은 농촌마을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 창원특례시서 벚꽃 보고 도다리 낚시 어때요?

창원특례시에서 벚꽃을 보고 난 뒤에 가볼 만한 관광지가 방송에 소개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14~15일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항, 저도 콰이강의 다리, 해양드라마세트장 등 창원의 해양 관광지에서 촬영된 FTV '피싱캠프 탁탁'이 오는 26일 방영된다고 16일 밝혔다.

낚시전문채널인 FTV에서 26일 밤 10시 10분에 방송되는 '피싱캠프 탁탁'(연출 이주현)은 출연진이 전국의 관광지를 두루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낚시 실력도 뽐내는 프로그램이다.

배성규 프로를 비롯해 모델 고은정, 걸그룹 아이씨유(ICU)의 아빈, 채이가 참여한 창원편 촬영은 국내 최대 해양 친수공원인 315해양누리공원에서 오프닝을 열었다.

이어 바다를 낚 사극 세트장, 해양드라마세트장을 찾아 이곳에서 촬영

된 드라마의 명장면을 떠올리며 2000년 전 가야시대의 자취를 느꼈다.

다음날 이들은 봄철 별미 도다리를 낚기 위해 구산면 원전항으로 향했다.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부지런히 줄을 당겨가며 강태공의 면모를 보였다. 원전항은 사계절 선상 낚시로 유명한 곳이다.

밤에는 저도 콰이강의 다리를 찾아 밤바다 정취를 비추는 은하수 조명위를 거닐어 보고, 최근 조성된 미디어파사드를 감상하며 아름다운 구산면의 야경을 만끽했다.

구산면으로 향하는 길, 구불구불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4월이면 진해 부럽지 않은 벚꽃 드라이브 명소가 된다.

창원의 관광지를 배경으로 촬영된 낚시와 낭만이 어우러진 여행기는 오는 26일 일요일 밤 10시 10분 FTV에서 만날 수 있다.

장재현/기자



## 부산시 금정구, 2023년 '든든한 한끼' 사업 추진

금정구와 함께하는교회가 관내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사업인 '든든한 한끼'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든든한 한끼'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됐으며, 협력기관인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50세대를 대상으로 밀반찬 도시락을 제작하고, 완성된 도시락은 동 인적안정망 봉사자를 통해 대상 가구에 방문 전달한다.

김재운 금정구청장은 "소외 취약계층 대상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협력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와 같은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 2023년 '남해로 오시다, 광역시티투어버스' 힘찬 출발

3월10일 서울 첫 출발, 19일 전주부산대구 등 거점별 본격 운행

지난해 84회를 운행해 완판을 기록한 남해군 '광역시티투어' 버스가 지난 13일 서울에서의 첫 출발을 시작으로 올해도 본격 운행된다.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남해로 오시다' 광역시티투어는 물리적 접근성 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부산·대구·전주 등 광역 관광거점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2023년 '남해로 오시다' 광역시티투어는 매주 주말 지역별 22회 운행되며, 부산·대구·전주(당일) 2만9천원, 서울(1박2일) 9만9천원으로 편리하게 남해를 여행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남해 광역시티투어는 금산과 보리암을 중심으로 구성된 A코스와 독일마을 중심 B코스, 다랭이마을 중심 C코스가 번갈아 운영되며 축제 시즌에 맞춰 특화상품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에는 남해대교 개통 5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문화이벤트 '꽃피는 남해'를 비롯해 남해 바래길과 사리밭 걷기여행, 독일마을 맥주 축제, 크리스마스 마켓 등 축제별·계절별 특화여행상품도 준비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광역시티투어를 통해 수도권과 관광거점별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해군 관광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제별·계절별 특화여행상품 개발 등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 칠곡군, 봄맞이 환경 정화 활동 실시

칠곡군은 지난 14일부터 읍면별 봄맞이 환경 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마을주변, 하천변, 관광지 등에 지난 겨울동안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민들에게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새 봄을 맞이하여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14일 가산면 강정천 인근에 버려진 8톤가량의 생활쓰레기 수거를 시작으로 15일(석적읍 광암천), 16일(동명면 팔거천), 21일(예관읍 동정천, 가산면 군위산성마을), 22일(복삼읍 시가지, 지천면 낙화담), 23일(약목면 시가지) 순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마을 이장, 사회단체, 유관기관, 주민 등 공무원을 포함한 약 540명의 대규모 인원이 지역의 환경보전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

에서 그 의미가 크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겨울철 동안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고 지저분한 생활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마음에 새로운 봄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니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송광삼/기자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숲**

한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경의

**길**

오도보도 걷기 좋은 길, 오도보도 걷기 좋은 길

**물**

한강의 맑은 물, 한강의 맑은 물

**빛**

한강의 별, 한강의 별

**길**

오도보도 걷기 좋은 길, 오도보도 걷기 좋은 길

**물**

한강의 맑은 물, 한강의 맑은 물

**빛**

한강의 별, 한강의 별

**맛**

한강의 별, 한강의 별

**심**

한강의 별, 한강의 별

## 영양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강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분신계곡, 천벽공원, 죽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박물관, 반달곰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농보전사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지, 홍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생태생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 의성군, 제16회 산수유마을 꽃맞이행사 개최



의성군은 오는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의성 산수유 마을(사곡면 화전리 1116)일원에서 제16회 산수유마을 꽃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수유 마을은 “영원불변의 사랑”이란 꽃말을 가진 대표 봄꽃 산수유 3만여 그루에 달하는 무농약, 무공해 산수유 노거수들이 노란색 꽃을 폭죽처럼 터뜨리는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국내 대표 산수유관람지이자 의성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이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아 개화시기가 일주일가량 당겨졌다. 행사 기간에 방문하시면 활짝 핀 산수유꽃의 노란빛깔과 의성지역 대표 작물인 마늘밭의 초록 새싹들이 어우러져 풍경화 같은 아름다운 광경에 빠질 수 있고 산책을 따라 걸으면 오래전 자식이 없던 부부가 바위에 처성을 드러 아들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할매할배마루도 만나볼 수 있다.

덧붙여 공연, 판매, 시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상춘객들을 반길 준비를 마쳤다. 이번 꽃맞이 행사의 대표 프로그램인 산수유 꽃길 걷기를 비롯하여 ‘TBC 싱싱 고향별곡’기용아재와 팡패라 가수 배은희 등의 외부 공연팀과 지역 공연팀들이 꾸미는 다채로운 공연이 매주 토, 일 주요 공연장에서 진행되어 봄나들이 분위기를 한껏 띄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의성지역 청년기업가의 플리마켓, 사회적기업인 마켓, 의성농특산물 판매장터, 다양한 먹거리장터, 산수유차 시음회 등이 상시 운영되어 즐거움을 더 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봄나들이하기 좋은 시기에 산수유마을을 찾아 봄을 만끽하시면서 다채로운 공연도 즐기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도 많이 구매하는 등 준비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 2023년 제1회 통영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최

통영시는 지난 3월 14일 통영시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통영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총 3개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심의했으며, 심의안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음악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2023년 통영국제음악제, ▲통영트라이에슬론 광장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수산인의 날 행사, ▲통영시 대표적인 봄맞이 지역축제인 제18회 봉숫골꽃나들이 축제이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안전관리 분야의 심의위원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 사고 이후 많은 인원이 물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

느 때보다 심도 깊은 심의를 이어나갔다.

특히, 용화사광장에서 2일간 개최되는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에 주최측 추산 2천여명 이상의 가족단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많은 인파로 인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감안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조현준 통영시 부시장(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이 통영시 대표 행사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 시민안전과, 통영소방서, 통영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 사천 항공우주 미니클러스터 총회 개최



사천지역 항공 제조기업 간 협업을 위해 지난해 설립된 ‘사천 항공우주 미니클러스터’가 15일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미니클러스터 회원기업과 유관기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항공우주 미니클러스터 운영 보고와 함께 그간의 사업 진행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입주 기업체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회는 항공산업 전망,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는 기업 지원사업, LH는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분양, 사천시는 기업투자 인센티브에 대해 설

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2월에 출범한 사천항공우주미니클러스터는 2020년 8월 정부의 ‘2030 경남 항공우주산업 선진국 도약’ 비전 실현에 따라 기업체 중심의 자율형 운영방식으로 변경됐다.

현재 40여개의 유관 산·학·연 기업·단체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미래형 비행체 생산기지와 등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맞춤형 항공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해 사천이 명실상부한 아시아 항공우주산업의 선도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 경북도, 2023년 농어업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용자 지원

####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총 137억 원(1.0% 금리) 융자 지원

경북도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해 농외소득을 창출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효과가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사업이다.

낮은 대출 금리와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되면서 매년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더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리는 총 137억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kW 기준 1억 4천만 원,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kW 기준 7억 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다만, 경북도는 식량안보와 농지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며 지원희망자는 경상북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로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도내 거주기간, 농어업 종사기간 등을 평가하



고 햇살에너지농사 추진단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설치 위치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도민들에게 저리로 태양광 시설

자금을 융자해주는 햇살에너지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농어업인들이 수익을 창출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북도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 - 위트컴 장군의 인류애와 선행, 전쟁반대와 평화의 염원을 담은 위트컴 장군 동상 건립 성금 전달 (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이영 부의장)는 3월 15일(수) 11시 유엔평화기념관에서, 부산지역 간부자문위원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트컴 장군 동상 건립 성금’을

위해 그동안 모은 693만원(사)국제평화기념사업회에 전달했다.

위트컴 장군 동상 건립을 위하여, 지난 1월 19일부터 민주평통 부산지역 자문위원들의 정성 어린 성금

을 모았고, 자매결연 지역인 LA협의회 자문위원단의 성금을 기탁(2022년 11월 부산 초청 시) 받았으며, 모인 성금은 위트컴 장군의 선행을 기리고자 (사)국제평화기념사업회로 이날 전

달됐다.

위트컴 장군은 1953년, 부산역 앞 대화재로 피해를 입은 3만 명의 부산 이재민에게 군수물자를 즉시 보급하고,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전쟁 고아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며, ‘한국인 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장군’으로 불리는 분으로, ‘유엔 평화공원’에 그의 동상을 건립하고자 범시민 모금운동이 전개 중임에, 민주평통 부산지역 자문위원도 적극 동참하고자 이번 성금 모금을 진행하였다.

이영 민주평통 부산부위원장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밀려드는 피란민으로 평화상태에 이른 우리 부산을 살리고 뜨거운 인류애를 보여준 위트컴 장군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우리 민주평통이 적극적으로 성금 모금에 직접 동참하고, 본 모금활동을 널리 알리는 것이 이번 모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모금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뜻을 함께 해주신 민주평통 부산지역 구·군 협의회 회장 및 자문위원 분들께 감사사를 표했다.

송종진/기자

## 안동시,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 ‘글로벌 백신·바이오 허브로 도약’

#### 백신, HEMP 중심 바이오의약 R&D, 상용화, 고도화. 추진... 세계화 선도

안동시가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백신·바이오 허브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5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결과에 따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등 총 14곳을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선정했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지역공약으로 이번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바이오엑스 강국 도약을 선도해나갈 전망이다.

앞으로 시는 2030년까지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 132만㎡(약40만평) 부지에 3,879억여 원을 투입해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한다. 백신·HEMP 바이오의약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 백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세울 계획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합동설명회 및 후보지 현장실사에서 연관 기업체의 높은 입주 수요도와 경제적 파급효과, 바이오산업 분야 상대적 강점, 중심적 지리와 교통 접근성의 우수성 등을 강조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국가산업단지 신청에 앞서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172개 기업이 산



업유지 면적 대비 227.2%(91만㎡)의 부지에 입주를 희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 76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4.28조원이 투자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8.62조 원, 3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안동이 바이오·백신산업 분야에서 구축해온 산·학·연·관의 시너지도 극대화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스마, 동식물세포 실증지원센터, 백신상용화 실증지원센터 등 경북바이오1.2차 일반산업단지 내에 높은 핵심업종 특화도를 바탕으로 바이오

기업 및 기관들의 클러스터화가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의료용 헴프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경북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도 더욱 가속화된다.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은 중부내륙권의 중심지 및 광역접근성 등 뛰어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앙고속도로(서안동IC)가 인접하고 중앙선 복선화 사업을 통해 물자와 인력수급이 용이하다. 앞으로, 경북도청 신도시, 대구경북혁신항 등 배

후도시와의 지원·연계성을 위한 광역교통망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이용협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이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산업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예정지) 선정은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첫 출발점인 만큼, 전문가 평가 결과에 나온 보안의견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글로벌 백신·바이오 산업의 허브로 발전을 거듭해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지방시대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해 미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주에도 제조업 분야 첫 국가산단 들어선다

- 정부 국가산단 신규 공모에 '경주SMR국가산단' 최종 후보지로 선정
- 경주시 구상 적중, 사업비 3966억 투입, 2030년까지 국가산단 조성
- 주낙영 시장 "경주·경북·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 창출하겠다"

경주시가 정부 신규 국가산단 공모에 'SMR국가산단'이 최종 후보지로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선정돼, 203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할 150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국가산단 조성에 사업비 3966억원이 투입돼, 들어서게 됐다.



현재 국가산단은 전국 47곳으로 경북은 구미 6곳, 포항 2곳, 경주 1곳(월성원전) 등 9곳인 것을 감안하면, 경주시는 제조업 분야 첫 국가산단 유치라는 큰 결실을 거두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오전, 미래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는데, 경주시가 후보지에 이름을 당당히 올리면서, 원자력산업을 중심으로 특화 국가산단을 만들겠다는 경주시의 구상이 적중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SMR국가산단 조성사업은 국내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의 요람이 될 문무대왕과학연구구와 연계한 특화 사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민선8기 경주시의 핵심 전략사업이다.

경주시가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SMR국가산단을 통해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3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10억원, 취업유발효과 5399명이며, 산단조성 후 가동 시에는 생산유발효과 6조7357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 2779명에 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균형발전과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을 위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해 10월 제안서를 제출하고 현장점검, 전문가 종합평가, 산업입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 경주시는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정책적 타당성과 풍부한 입주수요 등이 강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규 국가산업단지 평가과정에서 가장 큰 관건으로 알려진 입주수요 확보를 위해 전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면서 대기업을 포함한 225개 기업에 275만㎡의 입주수요 면적을 확보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실제로 경주시는 지난해 9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화파워시스템, 현대엔지니어링과 차세대 발전시스템으

# 대구 중구, '모바일앱과 함께하는 골목투어' 운영

대구 중구는 3월부터 '모바일앱과 함께하는 골목투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앱은 개별 관광객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투어를 제공해 혼자서도 골목투어를 즐길 수 있는 AR콘텐츠 앱이다. 대구 중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앱은 대구중구골목투어앱과 AR대구중구골목투어앱 2종류이며, 대구중구골목투어앱은 1~5코스 중 코스를 선택하여 모바일 스탬프를 수집하

고, AR대구중구골목투어앱은 2코스에서 증강현실체험을 통해 영상을 감상하고 AR포토존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대구중구골목투어앱으로 모바일 스탬프를 모두 수집하거나 AR 앱에서 포토존 체험 사진 5장을 찍은 후, 인증사진을 SNS에 해시태그(#대구중구골목투어)와 함께 업로드하면 약령시관광안내소에서 홍보물품을 받을 수 있다.



김동현/기자

#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

## 국가 수소산업 선도, 지방강소도시 도약 발판 마련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15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4개소를 지정 발표했다. 이들 후보지는 사업시행자 선정,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죽변 후정리 일원에 48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조성비는 약 4,000억원이다.

울진 국가산단에는 국내 수소 관련 대기업을 비롯해 소부장 제조업체와 연구시설 등이 집적하게 된다. 국가혁신 수소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탄소중립 시대 핵심과제인 국가 수소산업을 울진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가게 될 전망이다.

지역경제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조 1천억원, 고용유발효과 24,050명으로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성원해주신 군민들과 총력을 다해준 700여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울진은 인구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미래 백년을 책

정하며, 아울러 "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 산학융합지구 지정 및 대학 유치를 통한 산업 현장인력 양성, 물류·수소 운송을 위한 철도·고속도로·수출항만 등 산업기반SOC를 확충하여 글로벌 원자력수소 허브로서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람이 모이는 지방강소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향했으며, 아울러 "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 산학융합지구 지정 및 대학 유치를 통한 산업 현장인력 양성, 물류·수소 운송을 위한 철도·고속도로·수출항만 등 산업기반SOC를 확충하여 글로벌 원자력수소 허브로서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람이 모이는 지방강소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 대구시, 중소기업의 중장년 채용 지원 나선다

- 중장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1년 이상 근무 시 고용장려금 지원
- 중소기업 인력난 덜고, 중장년 고용창출과 장기근속 함께 장려!

대구시는 중장년층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기업에서 중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근속 유지 등 해당요건 충족 시(6·9·12개월 고용유지 등) 각 1회, 모두 3회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지급하여 중장년층의 지역 기업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참여 대상 기업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을 채용하는 대구시 소재 500인 이하 제조업중소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50명으로, 3월 17일(금) 오전 10시부터 지원한도 도달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참여신청 방법은 e-mail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처는 대구경영자총협회(e-mail 8399@dgef.or.kr)로 하고, 문의는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 / 대구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본부(053-565-8781, 053-565-5656)로 연락

하면 된다.

안중근 대구시 경제국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고용유지를 장려하여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기회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덕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대응체제 총력

## 선제적 방역과 상황별 점검·조치로 농가 유입 차단에 만전

영덕군은 지난 9일 관내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됨에 따라 긴급 대응체제에 돌입해 방역과 양돈농가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영덕군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장소로부터 방역대 10km 내 3개 농가 돼지 5,145두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완료했다.

또한,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해 출입 통제, 소독실시, 방역시설 보강 등을 시행하고, 관내 전체 양돈농가엔 일제 소독과 방역실시 점검, 방역관리 홍보 강화 등을 실시해 바이러스의 양돈농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방역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해 군부대 방역 차량과 축협 공동방제단 2개 반을 투입해 발생지 주변 도로와 양돈농장 진입로 인근 하천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덕군은 지난 10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역할별 대응조치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시료 채취·검사 및 실험 파악, 특별예찰팀 구성을 통한 예찰 강화에 힘쓰고, 야생생물관리협회는 드론포획단을 통해 바이러스 발견지역 일대의 멧돼지 수색과 포획에 집중하며, 영덕군은 멧돼지 폐사체 관리 및 처리 철저, 영덕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집중 운영 및 교육 강화, 폐사체 주민신고 및 ASF 예방 행동요령 지속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농장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군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 선제적 인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종사자는 물론 군민들에서도 철저한 출입 통제와 집중 소독 등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8일과 9일 울진군과 영덕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 9일 기준 전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건수는 150건이며, 경상북도는 문경시 9건, 예천군 2건, 상주시 19건, 봉화군 5건, 울진군 1건, 영덕군 2건으로 총 38건이다.

장문화/기자

# 예천군, 예천장터 입점 업체 운영 설명회 개최

- 예천장터 운영 활성화 등 논의... 올해도 매출 꺾중 기대 UP
- 예천군, 우수 농특산물이 전국에 판매되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펼쳐

예천군은 지난 15일 오후 2시, 군청 대강당에서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예천장터 입점 업체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80여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천장터와 경북도 쇼핑몰 '사이소' 통합 플랫폼 구축,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등 현안 사항을 설명하고 운영 활성화 및 매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예천장터에 입점한 업체는 100여개소로 농·축산, 가공품 150여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15억 원으로 2019년 운영 이후 매년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이소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특가 이벤트, 기획전, 할인 쿠폰 제공 등으로 신규 가입자 수를 늘리고 맞춤형 판매로 고객의 폭을 다양하게 넓혀 매출 상승효과를 꾀할 계획이다.

권석진 농정과장은 "예천장터 입점 농가에서 정성 들여 키운 우수한 농특산물이 전국에 알려지고 판매가 늘어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울릉군, 산림일자리 분야 안전교육 실시

- 산불대응 및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산림안전 강화
- 남한권 울릉군수, "산불 방지를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 지원 약속"



울릉군과 울릉119안전센터는 지난 14일, 산림일자리 분야에 채용된 산불예방진화대 등 4개 분야 50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불대응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했다.

울릉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높아지면서 산불방지를 위한 발빠른 행보로 특별 산불대응 및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산림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산불 방지를 위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산림인근에서의 화기소지, 흡연, 발두령소각행위와 같은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산림방문객들의 위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역량

을 강화했다.

이날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찾은 교육장에서 남한권 울릉군수는 "산림일자리에 참여한 전원이 일선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우리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산림일자리 참여자 개개인의 역할을 강조했다며, 따라서 "산불 방지를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 지원을 결코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참고로, 현재 경북 산불피해 면적은 154ha로 전국 산불피해 면적 328ha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 피해 규모가 커, 건조한 기후 속 산불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 개개인의 노력이 더욱더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중.조강제기자

## 경북에는 이자 때문에 쓰러지는 기업은 없다!

- 금융기관과 다양한 금리인하 가능성 검토, 가능한 대책부터 조속 추진
- 정책자금 협약금리 인하 금융기관 적극 동참, 연간 3조원 규모 지원 시동
- 이철우 도지사,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대책에 발 빠른 대응

경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도 지원 정책자금 보증상품에 대한 금리인하,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을 위한 재원 마련 등 금융지원 대책 추진을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월 20일 광역도 단위로는 최초로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금융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금리인하 방안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 중인 보증상품(경북보증금)에 대해 100% 전액 보증시 CD(90일)+2.0%, 부분보증시 CD(90일)+2.3%, 대한보증 CD(90일)+2.0%로 기존 금리보다 각 0.2%씩 인하하는 데 6개 시중은행이 참여하기로 했다.

또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시군이 협약 없이 4~9%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던 것을

CD(90일)+2.0~2.3% 수준으로 협약을 체결하는데 대해 5개 시중은행이 참여를 약속했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 저금리 금융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 156억원을 출연, 이 재원의 15배수인 2340억원의 대출재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91억원에 비해 65억원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특별출연금 규모로써 고금리 상황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의 전격적인 협력으로 성사됐다.

아울러, 시중은행에 무이자도 자금 융자하는 대신, 은행은 도 자금의 2배수 대출재원을 마련해 금리 기본감면 및 추가감면을 통해 저금리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경상북도 중소기업행복자금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제1회 추경에서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 기존 300억원에서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자규모가 총 16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은행과 협약에 의한 감면금리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최초 산출금리 대비 50% 이하로 저금리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 직접 저금리 융자사업인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900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 100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재해자금 이차보전 4000억원 ▲소상공인 경북보증금 2000억원 ▲경북 혁신중소기업 미래융 금융지원 1000억원 ▲시군 중소기업운전자금 8480억원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750억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일반) 1조2000억원 등을 포함,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는 연간 3조원을 상회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소한 우리 경북에는 성실하게 일 잘 하는 기업이 이자 때문에 쓰러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자 부담이 된다면 일정 부분 이자는 은행에서 이자를 깎아주고, 그 부담은 정부에서 저야 한다. 중소기업의 이자부담과 관련한 현황과 제도개선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2023학년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 지역 초등학교까지 확대 추진

경북교육청은 지난 15일, 학생들이 찾아오는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2023학년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작은 학교 학구를 큰 학교 학구까지 확대·지정해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일방향 전입이 가능하도록 학교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 증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교육여건 개선,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로 교육 만족도 제고와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9학년도 부터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9학년도 29교 134명, 2020학년도 108교 460명, 2021학년도 143교 661명, 2022학년도 158교 580명의 학생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유입됐다.

또한 교육부 주관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에서 2020년 전국 15교 중 3교, 2021년 전국 16교 중 5교가 선정되며, 2년 연속 전국에서 최다 학교가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는 전국 15교 중 3교가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초등학교 144교, 중학교 20교 총 164교를 운영하며, 2023년 3월 2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유입 학생이 5명 이상인 초·중학교는 특색프로



그램 발굴·운영, 유입 학생 통학 지원 등을 위해 교당 1,500만 원 ~ 4,000만 원의 운영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읍·면 단위 소규모 학교와 시·읍 지역 과대·과밀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내년부터는 포항 등 10개 시 지역 내 과대·과밀 초등학교에서 동일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로의 일방향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한다.

그동안 도시 공동화 현상에 따른 신도시 지역 과대·과밀학급 해소 및 동일 도시 지역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시 지역 소재 동일 급지 학교 간 균형 발전과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해 도심권 학교 안에서의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시 지

역 내 초·중 25학급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시 지역 내 초·중 9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로 일방향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했으며, 시·교육청원은 학교 간 통학거리, 지역별 교육여건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 학교 선정 및 통학구역을 조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확대를 통해 시 지역 초·중·고교의 과대·과밀 학급 해소 및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작은 학교는 우리 교육의 미래이며 희망인 만큼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해 작지만 강한 학교 육성을 위해 적극적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새마을회, 숨은자원모으기 경진대회 열어

#### 각 읍면별 수집된 자원을 지역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



봉화군새마을회는 15일 지역 자원 재활용업체(내성자원)에서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숨은자원모으기 경진대회는 환경보호와 녹색 생활 실천 및 선진 군민 의식 고취를 위해 새마을단체가 중심이 되어 군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새마을 운동이다.

이날 행사는 전제 의식행사로써 각 읍·면별로 고철, 폐지, 헌 옷 등 자원을 미리 수집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지역 자원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봉화군 새마을회는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에서 고철 등 자원 80톤을 수집해 3500만 원의 수익을 냈으며,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은 새마을지도자 봉사활동 지원 및 불우이웃돕기 행사 운영 지원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최기영 봉화군새마을회장은 "자원을 재활용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깨끗하고 청정한 봉화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 예천군, 건강한 출산 도와드려요! '행복한 임신부 교실' 교실 참여자 모집

예천군은 오는 4월 4일까지 관내 임신부 및 예비 임신부를 대상으로 '행복한 임신부 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임신 중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4월 6일부터 27일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관내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체조·명상 △산후우울증 예방 방법 △태교 용품 만들기 △구강·한방 건강 교실 △산전체조 교실 △부부 동반 숲 태교 등 임신부의 건강 증진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

특히,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진행되는 부부 동반 숲 태교는 배우자와 함께 산전체조, 아기에게 편지쓰기 등 활동을 통해 임신부의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참여자 간 친목을 다져 정보 교류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안금기 보건소장은 "행복한 임신부 교실은 임신 중 흔히 가질 수 있는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하고 올바른 출산·육아 정보를 얻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천시, 도시경관사업 속속히 재개

#### 야사동 안심마을길 조성사업 등 경관사업 5곳 추진

겨울철 기온 하강 등으로 중지됐던 영천시 내 경관사업이 속속히 재개되고 있다.

영천시에 따르면 △야사동 안심마을길 조성사업(2억) △금호읍 교대리 경관개선사업(2억) 등 신규 사업 또한 추진해 도시경관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사동 안심마을길 조성사업'은 경상북도 공공디자인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주거지 인근 어두운 골목에 조형물 및 경관조명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을 주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호읍 교대리 경관개선사업' 또한 도비 포함 총 2억 원 예산으로 영천시민의 테마를 담은 디자인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또한 지속적인 도시경관 유지관리를 위해 2012년 시행한 영천중학교 앞 용벽의 보수공사도 오는 4월까지 완료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신규 경관사업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 영양군, 송하리 치매보듬마을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 치매가 있어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 조성
- 오도창 영양군수, "치매친화적인 마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영양군은 봄철 농번기농성수기를 맞이하여 03월 18일부터 휴일에도 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정상 운영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봄철 농기계사용의 수요가 많아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는 03월 18일부터 06월 17일(14회)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정상 운영해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의 입출고 관리 및 현장 수리 등을 지원한다.

농기계임대는 평일과 같이 매주 토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임대농기계 접수 및 예약 입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농성수기에 농촌인력 부족으로 농기계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주말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정상 운영하여 관내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임대장비를 철저히 점검해 농업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윤근수기자





#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해 대도약전남행복시대 연다

## 전남도, 15일 유기농 다짐대회...농협 등 본사 전남 이전 촉구도

전라남도는 15일 도청에서 '2023 유기농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 친환경농업 적극 실천을 통한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열 것을 결의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중지를 모아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본사 전남 이전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신의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장과 도의원, 강윤호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유장수 전남친환경농업협회장, 농업 관련 유관기관, 친환경농업인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케이(K)-유기농을 선도하는 친환경 전남'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우수 시군과 농업인 시상, 유기농 실천 다짐 결의, 샌드아트 공연, 유기농 실천 퍼포먼스에 이어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 소개,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농업 역할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유기농 실천 다짐 결의에선 친환경 농업 생산·유통 등 분야별 결의자 대표 6명이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 및 저탄소 농업 실천 등 친환경농업으로 전남농업의 희망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을 소개하면서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확산을 통한 친환경농업 전환 유도, 공공 분야 친환경 급식 확대,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로 2025년까지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5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2023 유기농 실천 다짐대회'에서 친환경농업인 등과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해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열어나가기로 결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강에선 정우석 광주전남연구원 박사가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농업의 역할'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를 위해 저탄소 실현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전국 유기농 인증 면적의 63%를 차지하는 유기농 1번지로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유기농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을 통해 농산물의 가공·유통 브랜드화 및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밸리 조성, 국제 유기농 수출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농업은 친환경농업이 대세"라며 "전남의 '유기농' 브랜드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사)전남친환경농업협회 주관으로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본사 전남 이전' 건의문을 낭독, 2만 2천여 친환경농업인의 의견을 모아 농도 전남으로의 이전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올 한 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실천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수·채소 품목 다양화 및 판로 확보에 중점을 뒀 친환경농업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3만 6천 106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유기농 인증 면적은 2만 4천 697ha로 전국 인증 면적의 63%로 전국 제1의 친환경농산물 공급기지로 범국민적 관심과 전국화를 이끌고 있다.

정해명기자

#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봄맞이 대정비 '적적'

## 해빙기 시설물 일제점검 및 안전진단 준비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가 본격적인 봄나들이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시설 정비에 들어갔다.

군은 우드랜드 내 생태건축체험장, 억불산 말레길, 톱밥산책로, 향기원, 치유의 숲 등 주요시설 세단장과 안전진단을 서두르고 있다.

생태건축체험장 이용객의 안락한 쉼터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숙박시설 17동 실내·외 보완공사를 진행중이다.

억불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3.8km 무장애 데크로드 훼손 구간을 보수하여 관광객이 안전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말레길 탐방로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우드랜드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천연 향균이 풍부한 편백나무 톱밥산책

로 정비와 수목 정정작업, 안내판, 이정표, 의자 등 이용객 편의시설 보수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해빙기 시설물 안전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겨울철 결빙되어 지표면이 녹으면서 시설물 균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마무리 했다.

전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용역도 준비 중에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원년을 맞아 지역 대표 관광지인 편백숲 우드랜드 세단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봄철 가족들과 함께 우드랜드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 '주민 숙원 해결' 나주시, 문평 오륜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 확정 쾌거

## 농식품부 주관 2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 국비 90억원 등 180억원 투입

거북선을 제조해 임진왜란 해전을 승리로 이끈 나대용 장군의 고향, 나주 문평면 오륜마을이 국가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역사 테마 랜드마크로 새롭게 변모한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3년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 대상지에 문평면 오륜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마을 내 위치한 축사 등 난개발·유해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된 구역을 생활 SOC공간으로 조성해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시는 지난 해 호남 3대 명촌으로 꼽히는 노안면 금안마을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사업 대상지인 문평면 오륜마을은 조선 중기 무신이자 선박 과학자인 채암(濼菴) 나대용 장군의 생가와 장군을 기리는 사당인 소충사, 봉강사가 위치해있는 마을이다.

거북선을 건조해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한산도 대첩 등 임란 해전의 연전연승을 이끈 나대용 장군의 구국충정 스토리와 지난 해 개봉한 영화 '한산' 흥행에 힘입어 학생 현장체험학습, 단체 관광 등 방문객의 발걸음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마을 내 대규모 축산시설에



▲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마을로 선정된 나주시 문평면 오륜마을

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방문객 만족도가 낮을뿐더러 이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고충도 15년 넘게 장기화돼 왔다.

주민들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마침내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민선 8기 100대 공약과제이기도 한 '나대용 장군 소충사(전라남도 기념물 제26호) 정비 및 관광자원화'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문평 오륜마을 농촌공간정비에는 '나대용 장군 숭배 시설물 정비'를 비롯해 '나대용 장군 생가와 교묘마당, 충효관, 소충사 등을 연결하는 660m구간의 진입로 또한 이색 체험길인 '거북선 테마로드'(명칭)로 새롭게 정비한다.

27억원·시비 63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마을 내 위치한 대규모 돈사 1곳(11동, 5194㎡)과 장기 방치된 빈집 3호를 철거하고 공간 재생을 위해 부지 2만3155㎡를 매입하기로 했다.

정비된 공간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시 숙소 및 귀농·귀촌 임대주택 10동(70㎡), 스마트팜·영농실습장(3200㎡), 거북선 테마 다목적 교류마당(5100㎡), 삼강오륜 충효관(4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대용 장군 생가와 교묘마당, 충효관, 소충사 등을 연결하는 660m구간의 진입로 또한 이색 체험길인 '거북선 테마로드'(명칭)로 새롭게 정비한다.

김영안기자

# 완도해경, 국민과 함께 봄철 수상레저 안전문화 꽃 피운다

완도해양경찰서에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낚시활동 및 수상레저 활동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 밀착형 홍보전개 등 3월부터 5월 4일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완도해양경찰서 관내 최근 3년간 수상레저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총 36건('20년 16건, '21년 14건, '22년 6건)이며, 이 중 정비불량·운행부주의·선체결함 등 활동자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29건(81%)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레저기구 위치표출 및 조난신고가 가능한 '바다내비 앱(e-Nav)' 설치·홍보,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신고 활성화 홍보를 진행하고, ①무면허 조종 ② 주취운항 ③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한 홍보·계도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8일간)를 거쳐 안전 위해사범 집중 단속(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22일간)을 실시한다.

또한, 기관고장 등 표류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 증가지역을 선정한 후 수리 전문업체 및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협업을 통해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및 안전캠페인을 4월에서 10월 중 2회 실시하며 서비스 시행 전 활동자 대상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봄철 레저활동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해양사고 예방이 필요한 만큼 사전 정비 및 출항 전 안전점검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영을기자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2023 인터배터리'서 투자유치 활동

## 홍보관 운영...배터리산업 인프라

### 홍보·투자유치 잠재기업 상담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리는 '2023 인터배터리(Interbattery)'에 참가해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

올해 11회를 맞는 인터배터리 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지협회, 코트라 등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산업 전시회다.

전시회에는 삼성SDI, LG에너지솔

루션, SK온, CATL 등 글로벌 배터리 기업과 소재·부품 기업이 대거 참여해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이차전지 관련 다양한 신제품 및 기술을 소개한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장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광주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소개,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II(에너지밸리)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분양 안내, 광주 배터리산업 인프라와 투자여건 홍보, 인공지능과 연계한 에너지전환 및 신산업 육성방안 설명과 함께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차세대배터리를 미래 먹

거리로 선정하고 지난 2월 차세대배터리산업 진흥협회를 출범하는 등 배터리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2023년 핵심 목표인 배터리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총 4개의 산업지구로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II에는 세계적 전기 연구기관인 '한국전지연구원', 미래자동차 산업지구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터리 12개 시험항목 전체를 시험·인증할 수 있는 '친환경차·부품 인증센터', 인공지능(AI)융복합 산업지구에는 친환경 에너지저장기술 전문기관인 '한국에

너지기술원'이 자리잡고 있다. 차세대배터리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목표로 설정한 배터리 기업 유치를 통해 광주가 차세대배터리 선도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략적인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으로 매력적인 투자처 광주를 홍보하고, 광주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이 안정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 해남군, 어업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해남군이 어업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본격 운영한다.

군은 올 3월부터 몽골 셀렝게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을 어가에 배치했다. 이번 계절근로자는 지난 1월 해남군과 몽골 셀렝게 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1차로 입국한 것으로 이후에도 어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육상 가공·생산뿐만 아니라 율해부터는 해조류 해상 채취도 가능하게 되어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어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올해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130명의 인력을 배정 받았다. 외국인 계절근로

자를 희망하는 고용주는 수시로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된 가운데 하반기 필리핀 근로자 15명이 고용되어 현재까지 어업분야에는 29명이 입국, 8여가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업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됨으로써,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에 이종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고용주의 근로기준법 준수 등 인권침해 행위가 없도록 하고,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애기자



### 부안상설시장 길거리 포차 운영시간 확대



부안군은 '부안상설시장 길거리 포차'의 운영시간을 3월 16일부터 개편한다고 밝혔다.

길거리 포차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시간에 대한 방문객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개편하게 됐으며, 변경된 운영시간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은 11시 30분부터 17시까지이며, 금요일부터 토요일은 11시 30분부터 18시까지이다.

상권활성화추진단 관계자는 "길거리 포차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감사드리며, 판매 메뉴를 확대하여 더 많은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길거리 포차는 부안상설시장(부안읍 부흥로 47)과 부안마실공영주차장(부안읍 변영로 121)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안마실상권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김현태/기자

### 남원시 애향 가수 금청 홍보대사 위촉

####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지난 14일 남원 출신 가수 금청(본명 김성환)씨가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남원시는 가수 금청씨를 시 조례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을 확정하고 홍보대사로 위촉,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금청(64)씨는 남원시 송동면이 고향인 애향가수이다. 1997년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온 CEO로 2021년 7월 가수로 데뷔해 남원의 축제 및 각종 행사에 출연하며 남원 사랑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금청씨는 2021년 12월 아너소사이터 클럽에 가입한 남원시 2번째 회원으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50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했으며, 홍보대사 위촉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해 나눔과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청씨는 애향심 있는 가수로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고향사랑을 실천해 많은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홍보대사 활동으로 남원시를 더욱 알리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금청씨는 앞으로 3년간 남원시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 함께혁신! 함께성공! 김관영 지사 장수군 방문!

#### 최훈식 군수, 김관영 도지사 장수방문에 '동서화합 육십령'

전북 장수군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 특별한 전북시대, 장수군과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도정과 군정을 공유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15일 오전 장수군을 방문하고 1일 명예 장수군수로 위촉돼 간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청원과의 만남, 토마토 농장인 장수뉴젠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발전 및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최훈식 장수군수와 간부들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제16회 장수한우량사과량 축제 성공적 개최, 농림부 주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선정 등 작년 한해 장수군의 성과를 치하하며, "제20대 대선 지역공약 및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에 반영된, 백두대간 산림정원조성 국가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했다.

장수군은 ▲장수 노하숲길(소로 1-5) 통행 개선공사 ▲장수 변암면 죽림교 재개설 공사 ▲장계면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전라북도 1순위 반영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군은 인도 및 자전거 도로 부재로

통행 주민들의 사고 위험성이 높은 노하숲길 도로의 확보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으며, 특히 현안 토론회에서는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의 전라북도 1순위 사업 선정과 국가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전라북도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동서화합과 상생의 상징인 육십령은 예로부터 호남과 영남을 잇는 고갯길로, 육십령을 활용한 문화관광터 조성을 통해 지역화합과 균형발전 도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과의 만남에서 김 지사는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장수군의 역점을 두고 나갈 미래 성장산업이기에 미래농업 도약을 위해 지역특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청년 창업농들에게 안정적인 농업경영 기회를 제공하자"면서 "농수산관학교 운영과 농산물 안전기금사업을 통해 더 특별한 전북 성공시대를 만들고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기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장수군 토마토 농장을 방문해 "장수의 건강한 먹거리인 장수뉴젠 토마토가 우리 일상에서 늘 접하고 있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의 기업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일본 수출뿐 아니라 더 넓은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수재 대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원사업에 신규 농가는 신청하기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원조건 완화로 농촌 일손 문제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장수군농업단체협의회(회장 류기행) 관계자 등 도민과의 대화에서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장수 실현을 적극 지원하며, 장수군을 부자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훈식 군수님과 농업관계자분들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류기행 회장은 "전북도와 장수군 농업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농촌고령화로 인한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농민부담이 큰 농기계값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최훈식 장수군수는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김관영 지사께서 장수군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도정의 목표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장수군이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승오/기자

### 완주군 역사상 첫 국가산단, 직접투자-생산유발 효과만 9조100억 원

#### 국토부 15일 전격 발표에 지역민들 "국가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 마련됐다" 환영

완주군의 최대 현안인 '수소특화 국가산단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민선 8기 출범 이후 8개월 만에 '완주 국가산단 시대'의 새 역사가 열리게 됐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가 시도별 대선공약에 반영된 19개의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종합평가에 나선 결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신규 국가산단으로 최종 선정됐다.

산업평가와 임지평가 등 2대 분야에서 유치산업 적성성, 지역성장 잠재력, 정책 타당성, 사업추진 용이성 등 7개 항목을 엄격히 따진 이번 평가에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은 각 항목별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국내 최초로 수소를 특화한 국가산단은 오는 2027년까지 산단 부지 조성을 위한 2,562억 원을 집중 투입, 봉동읍 일원에 165만㎡(50만평) 규모로 빠르게 조성될 전망이다. 각종 기반시설 확충 등까지 포함하면 수소특화 국가산단의 총사업비는 6,27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완주군은 보고 있다.

완주군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관련 직접투자액은 72개 기업에 3조840억 원에 육박하고, 생산유발 효과도 5조9,274억 원에 달하는 등 총 투자 효과만 9조1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투자에 따른 직접고용 인원은 7,380명에 달하며, 고용유발 효과도 2만46명에 달하는 등 총 3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민들은 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환경강 통합하천사업 선정에 이어 최종 6,270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까지 확정되자 "국가균형발전의 획기적인 기반 마련을 통해 '환경강 기적'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번 쾌거는 완주군의 특화된 수소기반을 바탕으로 전북도와 정치권이 함께 뛰는 등 삼각공조를 이뤄 중앙부처와 중앙정치권을 집중 공략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의 지원사격에 지역구 의원인 안호영 국회의원, 더민주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호남위원장 등 여야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집중

지원에 나선 것이 큰 힘이 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수시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집요하게 설득하는 등 사력을 다하는 총력전을 펼쳐 취임 8개월의 짧은 기간에 초대형 잭팟(jackpot)을 터뜨렸다는 분석이다.

유 군수는 "정부의 용단과 각계각층의 지원에 힘입어 완주군 역사상 첫 국가산단 조성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며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인만큼 LH 등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산단 조기에 착공되고,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해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정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 완주군, "공약 주인은 군민" 완주군, "공약 주인은 군민"

#### 이광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초청, 정책특강

완주군이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한 특강을 개최, 공약이행의 쟁결을에 나섰다.

15일 완주군은 본청 직원과 13개 읍면 직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군청 1층 문화강좌실에서 (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초청해 매니페스토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올라섬에 따라 공약 실천의지를 다지고, 담당자의 책임감을 제고해 보다 적극적으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민선 8기 성공적인 공약 이행전략'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적응성·회복력의 시대로의 대전환을 강조, 변화하는 사회흐름에 맞는 공약추진 방안 등을 조언했다.

앞서 완주군은 군정 3대 목표와 3대 프로젝트, 5대 중점과제에 맞춰 총 4대 분야로 재분류하여 실천계획을 제시한바 있다. 3대 비전과 관련한 공약은 16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5대 중점과제와 관련한 공약은 47개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완주군은 민선 8기 출범의 원년(元年)인 올해가 공약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수시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해 군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약의 주인은 군민이고, 군민행복은 군정 최상의

가치이며 공약 이행의 성공열쇠는 공직자의 열린 마인드와 적극행정과 직결되어 있다"며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쟁점이 있는 공약,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 소통해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수/기자



### 익산시,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돌입'

익산시가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대규모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정현을 시장 주재로 2024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9월 첫 보고회를 시작으로 발굴한 ▲민선8기 공약 ▲익산 미래도시비전 ▲혁신성장, R&D 등 미래성장동력 ▲세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응 분야에 신규사업과 확보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76개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462개 사업을 확보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50대 중점사업을 추려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부처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 연구 정치인과의 소통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규사업으로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연화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소·전기차 중대형 핵심부품



비파괴 3D 안전성 검사 플랫폼 구축,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 76개 사업(총사업비 1조 9,804억원)이 논의됐다.

대표적인 계속사업으로는 디지털 식품 클러스터 구축·운영, 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 및 가상화 서비스 사업화 실증사업,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설립, 제3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 등 386개 사업(총사업비 4조 1,854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3차례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해 왔으며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정기조 변화에 대응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부합되는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부서에서는 우선 부처단계 및 정부단계에 우리시 국가예산이 담길 수 있도록 끈질기게 발품을 팔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수/기자



# 강원도 중부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추진

### 윤석열 대통령, “수도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5일 오전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의 발표에는 “수도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원주에서 밝힌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국가적 과제인 반도체 산업이 강원도의 미래 신산업으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4일 당선인 시절 원주시 부른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주가 묶여 함께 가는 게 좋겠다”고 발언을 한 바 있다.

향후, 수도권은 부지,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추가 공급 한계로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대조적으로 강원도 원주는 용인, 이천 등 경기남부권 도시들과 인접해 있으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신규부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반도체교육센터, 공유형 반도체대학을 추진하는 가운데 용수, 전력 등 반도체 기반시설 공급에 유리한 점 등을 활용한다면 충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강원도는 반도체 기업의 추가 투자를 원주로 유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경기남부권 반도체 벨트가 원주로 이어지는 ‘중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등원/기자

# 화천군, 역사유물 소장 화천 박물관 스마트 디지털 박물관 변신

### 미디어 월로 소장유물 정보확인, 곡운구곡 특별전도 개최

화천의 역사와 유서 깊은 유물을 간직한 화천 박물관이 스마트 디지털 박물관으로 변신했다.

화천 박물관은 지난 14일부터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설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천 박물관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공립 박물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문을 연 화천 박물관에는 1층 대형 디스플레이로 ‘미디어 월’이 자리잡고 있다.

미디어 월에서는 박물관의 소장품 정보, 각종 전시 콘텐츠는 물론 화천 지역의 관광지, 문화유산 사진과 영상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은 이번 스마트 박물관 개관을 기념해 3층 전시실에서 ‘곡운구곡 특별전-화천에서 찾은 은자의 이상향’을 개최하고 있다.

특별전에서는 조선시대 성리학자인 김수증을 소개하고, 그가 화천에 은둔하며 곡운구곡을 설치하기까지의 과정, 당시 김수증의 생활상 등을 시

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곡운구곡 특별전에서는 디지털 장비를 통해 당대 유명 화가인 조세걸이 김수증의 부탁을 받아 그린 곡운구곡도를 자세히 감상할 수 있고, 김수증의 편지와 저술 원문, 해석본까지 만날 수 있다.

전시장 바닥에는 화음동 정사지의 거대한 바위 위에 김수증이 새겨넣은 태극문양 등이 그대로 재현됐다.

화천 박물관에는 북한강 상류에서 출토된 선사시대 유물 약 6,000점, 1,000여점에 달하는 민속자료, 6.25 전쟁과 분단 관련 자료 등 화천의 역사문화를 보여주는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 답사교실, 미취학 아동 대상 병아리 교실, 군장병 대상 신나군 박물관, 역사문화교실, 어린이 박물관 학교 등 역사문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스마트 박물관 구축을 계기로 더욱 나아진 전시 관람환경이 조성됐다”며 “화천 박물관이 화천의 관광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최만식/기자



### 철원문화재단 ‘3월 문화가 있는 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이야기, 연극‘오백에 삼십’

철원문화재단에서는 오는 3월 29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생계형 코미디 연극 ‘오백에 삼십’을 화강문화센터에서 선보인다.

연극 ‘오백에 삼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과 일상을 현실적으로 담아낸 코믹한 요소의 단단한 스토리가 있는 공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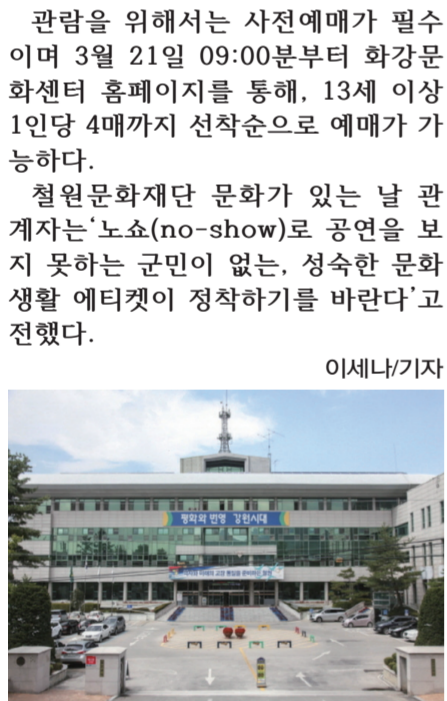
생계형 코미디라는 부제에 맞게, 내 집 마련의 꿈과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극으로,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담아낸 작품이다.

대학로 연기파 배우들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개성만점 캐릭터로 친구, 연인,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관람을 위해서는 사전예매가 필수이며 3월 21일 09:00분부터 화강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13세 이상 1인당 4매까지 선착순으로 예매가 가능하다.

철원문화재단 문화가 있는 날 관계자는 ‘노쇼(no-show)로 공연을 보지 못하는 군민이 없는, 성숙한 문화생활 에티켓이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세나/기자



# 동해시, 신성장 농업 인프라 구축 '총력'

### 전문농업 기술 지도체계 확립 및 농가 경쟁력 강화

동해시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신성장 농업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말까지 초구동 110번지 일원에 총 26억여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과학영농종합단지에는 토양검정실 및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실이 설치되어 미부속 퇴·액비 살포를 방지하고, 토양환경 개선과 축산 냄새 저감효과에 기여하게 된다.

스마트 농업교육장,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및 과학영농실증포(1000㎡)를 조성, 디지털 장비,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으로, 스마트 경영혁신을 지속 실천하

는 스마트강소농을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30억원을 투입해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 및 공급시설(300㎡)을 올해 말까지 신축해 고추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 토양 내 병균의 활성화를 막고 농작물의 체내 면역을 강화하여 농약,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근 농업인 농용장비 교육 대상자 50명을 모집하여 3톤미만 굴삭기, 지게차, 로더(택1)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등 농작업 효율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규연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노동력 부족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에

대응해 농업인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학영농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며, “4차 산업혁명 구현과 디지털 전환을 촉매하는 농업 신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 평창군,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평창군은 ㈜올타리USA와 14일(화) 평창군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타리USA는 대한민국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 한국산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생산자와 직접 계약 후 수출하여 미국 전역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며, 현재 251개 업체의 1,500여 품목의 상품을 수출·판매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상호협력을 통한 평창군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 확대를 목표로 북미지역 수출 및 마케팅, 미국 내 직영매장 및 온라인몰(올타리몰)을 통한 평창군 농특산물 판매 등 지속적인 활동 내용을 담고 있다.

최만식/기자

이번 협약을 통해 평창군은 군 농특산물 브랜드인 HAPPY700의 가치향상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세계화된 케이푸드(K-FOOD) 개발,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 공급체계 구축으로 평창군의 농특산물이 세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평창군 농특산물 유통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채널의 세계화, 다각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평창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 고성군, 어업인수당 가구당 70만원 지급 추진

고성군은 어업인 소득안정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2023년도 어업인 수당’을 지원한다.

지난 해에는 456어가에 3억 1,9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됐고, 올해는 4억 1,37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91어가에 가구당 7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3. 1. 1. 전일까지 2년 이상 고성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이다.

다만,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어업인 수당 신청서,

수당 지급동의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어업인 자격증명서류(120만원 이상 위판 실적, 60일 이상 출항실적) 등이 다.

고성군은 3월 14일(화) ~ 4월 28일(금)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서 어업인 수당 신청서류를 접수 받으며, 오는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은 “유류비 상승과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어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자립력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Goyang

# 2023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 고양국제꽃박람회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3.4.27-5.8

생활 속의 꽃 Flower in the Life

재단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 충북도, '인터배터리 2023' 통해 저력 알린다

세계 최대 규모 배터리 산업 전시회에서 전국 1등 충북의 이차전지 경쟁력 홍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지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인터배터리 2023'은 세계 최대 규모 배터리 산업 전시회다. 세계 배터리 기업과 완성차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교류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다.

충북도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도내 이차전지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전시하고 뛰어난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 총 5개 기업의 참가를 지원한다.

또한, 충북기업 공동관 내 홍보관 운영으로 도내 이차전지 연관 산·학·연 및 지원 기반 시설 현황 등 충북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홍보하여 '전국 이차전지 1등 지자체'의 위상을 드높일 예정이다.

충북도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은 "전국 유일의 '충북 이차전지 소부장 특

화단지'에 선도기업과 공급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테스트베드가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집적되고 있고, 선도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배터리 신모델 시생산 테스트라인과 연구개발센터가 민간주도로 구축되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 기반 시설 활용성과 충청·수도권까지 연계 확장성을 갖춘 충북(오창)에 정계, 정부, 이차전지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21년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대만의 신주과학산업단지와 같이 이차전지 기업 집적 및 연구기관, 인력양성기관 등의 기반 시설 강화를 통한 도약을 위해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참여한 상태다.

고정화기자

### 예산군, 원예특작분야 국비 지원사업 신속 추진

예산군이 시설원에 분야에서 확보한 국비사업 4개분야(총사업비 6억 7000만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까지 과채류, 화훼 등 원예농업인으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성 검토와 현장 평가 등을 실시한 뒤 선정 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6억7000만원 규모로 △고추비가림재 배설시설지원(1억10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지원(1억8000만원) △시설원예현대화품질개선사업(2000만원) △공기열냉난방시설지원사업(3

억6000만원) 등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은 시설하우스 농업의 자동화 및 첨단화를 도모하고 관내 원예농가의 고품질 청정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요 원예작물인 쪽파, 수박, 메론, 딸기 등의 농사 적기에 맞춰 신속한 집행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원예특작분야 국비사업 확대를 통해 관내 원예농가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 충남도, '골드러시' 옛 땅에 '파크골프 메카' 만든다

### 도, 청양 구봉광산에 파크골프협회 유치...108홀 경기장·교육센터 신축

충남도가 대한파크골프협회를 유치, 한때 국내 최대 금광으로 '골드러시'가 펼쳐졌던 청양 옛 구봉광산을 대한민국 파크골프 메카로 조성한다.

김태홍 지사는 15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홍 청양군수, 이금용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장과 '대한파크골프협회 충남도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청양군, 대한파크골프협회는 협회 사무실 및 교육센터 이전, 파크골프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고령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대한파크골프협회는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옛 구봉광산 일원으로 이전, 14만 6125㎡의 부지에 협회 사무실과 교육센터, 전국 최대 10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신축·조성한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총 150억 원이다.

도는 대한파크골프협회 이전 및 파크골프 조성 사업을 모두 완료하면, 청양은 대한민국 파크골프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몰리며,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우선 대한파크골프협회 지도자·심판·어르신 강사 교육 및 연수 등을 통해 연간 1만 8000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대한체육회장기·충남도지사기 등 연간 10회 이상의 전국대회를 통해서는 6000명 이상 방문이 기대된다.

2021년 7월 문을 연 강원도 화천군



의 54홀 규모 산천어파크골프장 사례로 볼 때, 청양 파크골프장 동호인 방문객 수는 연간 20만 명 이상으로 전망된다.

화천 파크골프장 월 평균 이용객은 88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수도권 등 전국에서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이전 후 직원 등 상주 인원은 10명 안팎이다.

김태홍 지사는 "어르신들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며, 각종 운동 중 파크골프는 노년층을 운동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높다"라며 "대한파크골프협회 및 교육센터 유치를 계기로 충남을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메카로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새 터를 잡게 될 옛 구봉광산은 일제 강점기인 1911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 1970년까지

대한민국 최대 금광으로 유명했다.

1971년 휴광, 1994년 폐광 때까지 구봉광산에서 채굴한 금의 양은 1만 3332kg, 은은 3410kg으로 집계되고 있다.

1950~1960년대 금 채굴이 활발할 때에는 남양면 인구가 4만 5000명에 달하며, 현재 청양군 전체 인구(올해 2월 말 기준 3만 127명)보다 많았다.

구봉광산은 폐광 이후 도가 매입해 종합사격장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과도한 비용과 건립 이후 적자 운영 예상에 따라 사업을 취소했다.

현재는 임야와 잡종지로 불모지나 다를 바 없는 상태이나, 대부분 도가 소유하고 있어 부지 매입 등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 소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장(60만~100만㎡)보다 훨씬 적은 2만㎡ 안팎

(18홀 기준)의 경기장에서 골프채와 비슷한 나무 채(86cm·600g) 하나만으로 6cm 크기의 플라스틱 재질의 공(일반 골프공 4.2cm)을 쳐 홀에 넣는 방식의 경기다.

보통 4인 1조로 게임을 진행하며, 최종 코스까지 타수가 가장 적은 선수가 경기를 이기게 된다.

도는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과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이번 파크골프장과는 별개로 내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30개를 도내 각 시군에 신축설치키로 했다.

현재 도내 파크골프장은 28개소가 운영 중이고, 2개소는 조성 중이다.

도내 파크골프 생활체육동호회는 144개이며, 등록 동호인은 2020년 2890명에서 2021년 4375명, 지난해 584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 제천시↔ 지역 3개 공공기관 연수원 상생발전 업무협약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제천경찰수련원...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위해 '맞손'

제천시는 15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제천경찰수련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창규 제천시청, 김훈택 원장, 고호영 원장, 이상기 원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협약식은, 시 민선8기 출범과 코로나19 회복 국면을 맞아 상생발전 협력 분위기를 이끌고, 새롭게 우의를 약속하며 지역발전과 각 기관의 변명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각 연수원 교육운영이 올해부터 정상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교육생 및 가족 등 연간 30명 이상이 제천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생산 청정 식자재 및 농산물 구입, ▷지역문화탐방 및 경

제활성화 협력, ▷인구유입 시책 협력, ▷지역인재 고용 협력, ▷원활한 연수원 운영 지원, ▷기타 각 기관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각종 투여프로그램을 운영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민선8기 역점목표인 하루 평균 5,000명 체류관광객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창규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은 공동변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내 침체된 지역경제와 관광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제천발전을 위해 동참해주신 기관에 감사드리며, 추후에도 지역상생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아산시, 제4기 감사위원 위촉...공정·투명 행정으로 시민 행복 실현

아산시가 15일 감사위원 4명을 새로 위촉하고 제4기 감사위원회를 출범했다.

제4기 감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 1명과 아산시의회 추천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4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5년 3월 14일까지다.

위촉된 감사위원은 박기천(前 경찰 공무원), 정영제(前 행정공무원), 조혜연(변호사), 송한준(변호사)으로, 시정에 밝으면서도 전문적인 역량과 성품을 두루 갖춘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법률, 행정, 수사 등 각 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다양한 전문지식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결과 처분·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귀 시장은 "성과감사 등 다양한 감사기법을 통해 감사의 질을 높이고, 명확한 신상필벌로 공무원이 감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부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부시장 산하 '감사담당관'을 시장 소속 합의회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재편한 뒤 현재

까지 63회 위원회를 개최해 228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등 합의회 감사기구의 역할을 다하며 독립성 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 국가철도 클러스터 청주 오송에 유치 확정

####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로 철도강국 실현을 향한 첫걸음

청주시는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가 국토교통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충청북도, 국가철도공단과 철도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제안서를 제출하고, 철도관련 기업체 입주요향 사업설명회, 학회심포지엄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해왔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현장실사와 서면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에 선정된 오송 철도클러스터는 지난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과 민선 8기 이범석 시장의 선거공약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국가철도산업 클러스터는 청주시 오송읍 일원에 조성된다.

청주 오송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철

도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차량·부품의 제작·정비, 제작품의 시험검사 및 형식승인, 물류, 국내의 판매 및 국내의 기관 간 협력까지 철도산업의 순환적 수요·공급 과정이 클러스터 내에서 생산부터 판로까지 한 번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철도산업의 선순환구조체'를 갖추게 된다.

또한 청주시 오송읍 일원은 오송시 설장비 사무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분원 등 국내 최대 철도산업 R&D 시설이 집적된 곳이다.

따라서 청주 오송에 철도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철도교통과 함께 철도산업의 시설과 기능이 집적화돼 더욱 극대화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 고속철도 기술보유국으로 아직은 세계시장 대비 미약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철도 선진국들이

철도 클러스터를 통해 세계적인 철도 기업을 육성한 바 있다.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은 국내철도산업의 세계시장진출과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적 철도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오송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청주 오송은 세계적 수준의 철도산업의 혁신거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철도산업 규모는 46%, 국가 GDP에 대한 부가가치액은 7,000억 원이 증대되며 신규일자리는 6,900명명 창출될 것으로 분석돼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 오송은 KTX 분기역인 오송역이 위치한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로 전국주요도시 고속철도와 1~2시간 이내 연결이 가능하고 국도1호선, 경부고속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와도 인접한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고정화기자

### 제천시, 독일 베를린 음대 지호남 제천출신 기타리스트의 아주 특별한 연주회

오는 18일 오후 4시 제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기타리스트 지호남이 클래식 연주회를 개최한다.

제천이 고향인 지씨는 한국에서는 안성태, 허병훈, 이상우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현재는 독일 베를린 라스츠를 이끌며 음대에서 마스터 과정을 진행중이다. 귀국 연주의 일환으로 대전과 대구에서 연주회를 열었고 제천을 방문했으며, 오는 3월 말에는 일본 도쿄와 독일 베를린에서 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씨는 뛰어난 악곡해석, 집중력과 표현력을 강점으로 다수의 솔로 연주회를 비롯한 앙상블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호주 에들레이드 국제콩쿨 파이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관객과 심사위원으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2019년 대구 국제 기타페스티벌 콩쿨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시민회관 관계자는 "봄이 시작되는 주말, 제천시민을 포함한 모든 음악 애호가들이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에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린다"고 말했다.

지호남 기타리스트는 "내 고향에서 좋은 음악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고 싶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Ji Honam Classical Guitar Recital**  
지호남 클래식 기타 연주회

2023. 03. 18 (토) pm / 04:00

### 천안시, '2023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활짝

천안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는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구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일자리진흥원의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사업과 연계해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 잠재된 구직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구직자들의 취업 알선을 돕고 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알지 못했던 시민들과 일자리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웠던 주부, 노인 등과 같은 중장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받으며 큰 호응을 나타내고 있다.

15일에는 '일자리 버스'가 성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으며, 16일~17일에는 이동상담소가 공주대학

교 천안캠퍼스를 찾아 채용설명회와 취업박람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는 구인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인재 알선을 위한 구인상담을 진행해 구인등록 및 지역 내 인제 연계 등의 채용대행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를 산업단지 인근 읍·면 지역으로 더욱 확대해 많은 시민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정근기자





### 오산시 2023년 3월 시민시상식 개최

오산시는 지난 14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3월 시민시상식을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이권재 오산시장의 축하 인사와 표창장 전수 및 수여 그리고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총 1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먼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임에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납부 의무를 다한 경기도 유공납세자에 선정된 ▲세미켓코리아(주) ▲이승진씨 ▲한유석씨에게 각각 현판과 인증서가 전수됐다. 유공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경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경기도지사 표창은 선행 도민으로 선정된 ▲이석원씨(에코비트위터)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 매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한 유공자를 선정하는 시정발전 유공자는 ▲김명근씨(에코비트위터) ▲김순애씨(대원동통장협의회) ▲김병호씨(Happy house 집수리봉사단)



▲김용복씨(강릉치과) ▲이태호씨(오산종합사회복지관) ▲마상호씨(조흥운수(주)) ▲우종식씨(오산시 개인택시조합) ▲문철순씨(오산시 중앙도서관) ▲이보연씨(진흥환경(주)) ▲이우서씨(신일(주)) ▲정상화씨(스카이러브봉사단) ▲송용덕씨(오산시 수청동)가 선정되어 각각 오산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봄의 생기가 도는 3월이 됐다”며, “지난 4일 오산시에서 ‘공연이 있는 날’이 개최됐는데, 지역 내의 이러한 행사가 여러분에게 소소한 행복으로 다가갈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러분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위해 시정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양시현/기자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제3회 기호 자치의정대상 ‘우수의정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3월 14일 기호일보가 주관하는 제3회 올해의 기호 자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기호 자치의정대상은 ‘지역일꾼’, ‘공약이행’, ‘우수입법’, ‘우수의정’ 총 4개 분야별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경기도 내 광역·기초의원을 선정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미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을 통해 도정 주요사업이 법적 근거와 조례에 따라 투명성 있게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안과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집행기관의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편의성 증진 및 시급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인사와 협치에서의 불통을 지적하여 여야정협의체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

구성이라는 성과를 도출했으며, 산하 기관 인사청문회 확대 실시 등 경기도정을 견제하는 역할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지미연 의원은 누구보다도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미연 의원은 “기호 자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혜영/기자

### 대구시, ‘음악가 우종역의 삶과 예술’ 전시 열려

#### 문화예술 자료 전시로 작고 음악가를 추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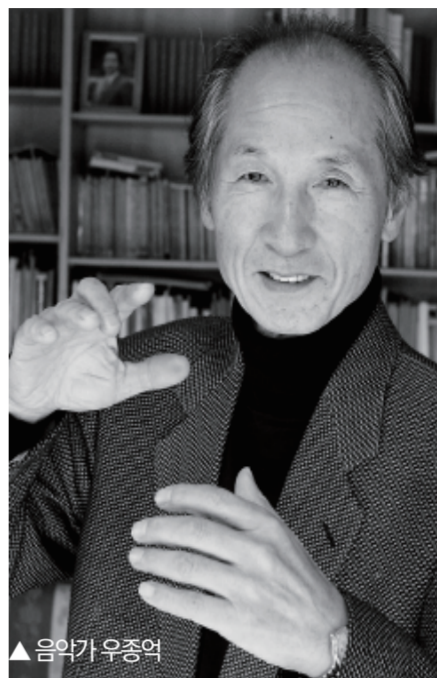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92세로 세상을 떠난 음악가 (月琴)우종역(1931~2022)이 생전 기증한 문화예술 자료를 통해 그의 삶과 예술을 되새겨 보는 ‘음악가 우종역의 삶과 예술’ 전시가 6월 30일까지 대구시 문화예술아카이브 열린수장고(대구예술발전소 3층)에서 열린다.

이 전시는 고인이 생전 원로예술인 구술기록화 사업에 참여한 후 대구시에 2020년 기증한 유품 악보, 출판 악보집, 음악회 자료, 녹음 음원, 사진 등 200건의 자료 중 선별했다.

음악가 우종역은 트럼펫 연주자로 음악계에 입문, 대구시립교향악단 창단 단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부지휘자, 2대 상임지휘자 등을 역임했다. 계명대 음대 교수로 재직할 때는 국내 최초로 지휘 과정을 신설했다.

또, 대구에서 서양음악 작곡의 토대를 닦은 박태준, 현제명, 김진균, 하대용에 이어 작곡의 영역을 기악, 관현악, 교향곡, 오페라 등으로 확장한 작곡가였다.

1966년 교향시곡 ‘달구벌’(후에 ‘조국’으로 바꿈)을 시작으로 실내악곡 18곡, 관현악곡 6곡, 협주곡 및 교향



▲음악가 우종역

곡 4곡, 취주악곡 12곡 오페라 ‘메밀꽃 필 무렵’, 합창곡, 성악곡 13곡 등을 작곡했다. 그의 첫 곡이 ‘달구벌’이라는 점은 그가 고향과 조국에 갖는 애정이 드러난다.

또 그가 처음으로 작곡한 오페라 ‘메밀꽃 필 무렵’(대본 탁계석)은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2009년)에서 창작 부문 금상을 수상했고,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2011년)에 초청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연주자, 지휘

자, 작곡가로서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구분해 기획 전시대에 선보인다. 한국전쟁기 육군 군악대 시절 사진, 작곡가로서의 작품 발표회 자료와 유품 악보, 대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서의 면모 등 여러 활동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연주자로서의 지휘자로서의 모습, 작곡가로서 작곡 발표회 등의 사진과 영상을 편집해 상영한다.

특히 이 영상에서는 그의 공식 석상 마지막 모습인 대구시립교향악단 제45회 정기연주회 (2019년 3월)에서 그의 작품 ‘운율’이 연주된 후 무대 인사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작곡한 작품의 연주 음원을 들어볼 수 있는 코너와 그가 생전에 남긴 구술 영상도 만날 수 있다.

김동우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음악가 우종역의 삶과 예술이 시민들에게 오래 기억될 바란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활동한 예술인들을 삶과 활동을 기억하고 새로운 예술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문화예술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우종역을 비롯해 현재까지 19인의 원로예술인의 구술을 채록하고 문화예술 자료를 기증받았다. 윤근수/기자

### 대구 동구 한국타일도기상사 박윤희 대표, ‘2022 국민추천포상’ 대통령표창 수상

한국타일도기상사 박윤희 대표(74)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 국민추천포상’에 선정, 지난 2월 16일 제12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12년째를 맞이한 국민추천포상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아 정부가 포상하는 제도로 올해는 19명이 받았다.

박윤희 대표는 동구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611명에게 1억2천만원 상당의 교복지원, 동구사랑나눔행사 백미 500포 및 성금 6천만원, 코로나19 방역용품 2천만원,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10억원 등 40여년간 현재까지 약 16억 상당을 꾸준히 기부해 왔다.

1978년 대구에서 타일 사업을 시작한 이후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될 만큼 투명한 사업 운영을 해온 것은 물



론 매년 개인 수입의 70%정도를 사회에 환원하며 영리와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과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길을 제시했다.

박윤희 대표는 “사업이 잘 될때도, IMF를 겪으며 부도 위기를 맞이할 때

도 세상이 나와 회사를 키웠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동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소신 있는 기부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현/기자

2023년 1월 1일 내 고향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

# “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예천군

기부한도

최대 합산 500만원까지  
(다른 지자체 합산)

기부자

기부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초과시 16.5%)
-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지역생산자

답례품

- 예천장터(www.ycjang.kr) 쿠폰
- 예천사랑상품권
- 삼강주막 캠핑장 할인권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기부금 대면접수창구



# 달성군,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 조성 힘 보탠다.

## 산단내 행위제한, 인·허가, 보상, 민원처리 적극 지원키로

달성군은 '23. 3. 14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역균형 발전 및 미래 첨단산업 유치·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구발전을 위한 미래 100년의 청사진과 먹거리 창출을 위한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가 '23. 3. 15 최종 지정됨에 따라 분야별 지원대책을 총총히 마련·추진하여 제2국가산단 조성역량이 추진되도록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달성군에서는 대구시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내 불법 투기행위 사전 차단을 통한 지가안정을 위해 지구 내 행위제한계획을 마련, 후보지 내 부동산 투기 및 지가 급등 예방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원가부담 최소화하고 미래산업 중심의 앵커기업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성기간을 단축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먼저 사업지구내(3,285천㎡, 6개리(화원읍 구라리, 설화리, 성산리, 천내리/ 옥포읍 간결리, 기세리)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일평균 이상(주거지역 60㎡초과, 상업지역 150㎡초과, 녹지 200㎡초과 등)의 토지거래시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실사용(거주) 목적의 토지거래만 허용한다.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3. 15. 행위제한지역 지정공고 및 5일간의 열람 과정을 거쳐 '23. 3. 21.부터 5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동일한 사업지구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되며, 지정일로부터 3년간 시행되며 1회에 한하여 심의없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역시 3. 15. 행위제한지역 지정 및 14일간의 열람공고(3.15. ~4.4.)와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4.10. 예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일로부터 3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달성군에서는 대구시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인·허가, 보상, 민원처리 등의 지원분야에 세부계획을 마련 중점 추진하여 속도감있는 산단조성으로 사업추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군 종합민원관을 중심으로 경제, 건설, 건축, 농업, 환경, 녹지, 하천, 청소 등 산단조성 인·허가 업무 관련부서를 총망라한 가정·제2국가산단 원스톱지원 T/F'팀을 구성하여 대구시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부터 인·허가 절차이행, 기업체 입주, 지원사업추진까지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업수행기간의 보상업무도 사업기간 준수 또는 단축의 최우선 과제만큼 실력을 갖춘 경험자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

다. 아울러, 제2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각종 민원 발생 상황에 대해서도 대구국가산단 조성 등 그동안 지역별 산단조성과 해결방법 등의 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 매뉴얼화하여 신속히 해결하여 민원발생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단단지 기반조성 완료 후 용지분양과 함께 기업체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전담 지원팀을 신설하여 분야별 기업별편 해소, 일자리 및 근로자 교육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달성군에서는 제2국가산단에 위치할 기업체가 미래모빌리티, 빅데이터, AI 등 고부가가치 첨단 미래산업으로 기업체 및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안정적인 주거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야별 SOC사업과 문화예술관광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화원읍포IC 입구에 주차대수 612면의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한 후 금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1월 준공·운영하여 산단 입주 기업체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사전에 완비하게 된다.

또한 2022년 12월 대구 최초로 지정된 문화도시 추진과 연계하여 국가산단 부지내에 위치한 (구)화원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에도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산업업을 추진하여 달성문화도시센터(라키비움, 시민교육공간 및 체험공간), 입주시설, 편의시설로 구축하여 누구나 함께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제2국가산단의 문화거점 공간으로 특화 조성한다.

아울러 사문진주막촌에서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이르는 공간에 S자형 관광벨트 추진으로 매년 강정보 디아크 광장 일원에서 개최하는 달성현대미술제도 해외작가 참여비용 확대를 통한 국제비엔날레로 세계속의 미술제 개최로 추진하고 화원읍원지 일원에는 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화원 가족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대구교도소 후적지에는 국립근대미술관을 유치하여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명품 산단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 조성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경제여건 속에서 중력이산(象力移山)의 마음으로 달성군뿐만 아니라 대구의 미래 100년을 먹여살리는 핵심사업으로 전 공직자들과 27만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구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달성이라는 도화지의 마지막 남은 여백을 27만 주민들의 소중한 바람인 미래사업 중심 특화산단단지로 소중하게 채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동현/기자



# 경북도 신규국가산업단지 경주, 안동, 울진 3곳 선정 쾌거!!

## 원자력, 수소산업의 게임체인저로 부각, 북부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

경북도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경주SMR 국가산업단지,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울진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3곳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도에는 국가산업단지가 10개소로 1969년 구미1공업단지를 시작으로 9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지정을 목표로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이번 3개소가 지정되면 국가산업단지가 13개소 80.20km(2,431만평)에 이른다.

지난해부터 경북도는 윤석열 정부가 지역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산업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국경과제 및 지역정책공약에 반영된 사업 중 지역의 주력성장산업으로 원자력과 수소, 백신 산업이라 판단하고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선정과정에서 국가산업단지의 필요성, 국경과제의 적합성, 산업 입지적 장점 등을 내세우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①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전) 산업생태계 구축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위한 경주SMR 국가산업단지는 최근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 받으며 세계원전시장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SMR관련 원자력산업 선점을 위해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약 150만㎡규모로 총사업비 396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독자 SMR개발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기술연구소와 연계해 SMR 수출모델 공급망 구축과 SMR 혁신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전수출 제기에 따른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원전의 안정적 생산 및 핵심부품 기자재의 혁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② 바이오 백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갈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단 후보지에는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의약품 연구, 기업과 의료제약분야와의 다양한 제품화가 가능한 햄프를 활용한 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안동시 풍산면 일원 약 132



399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R&D 연구실증단지 등을 조성하고 저비용의 수소 생산·저장·운반·활용과 수소산업 전 분야에 대한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에너지자립 실현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2조 원, 고용유발효과는 8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만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신속히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생태계로 조성해 나갈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경북은 기존의 '연구(문무대왕과학기술연구소)-원전설계(한전기술)-운영·발전(한수원)-폐기물처리(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과 함께 원전산업 기자재 공급망, 원전활용 수소 생산공급망까지 갖출 수 있게 되어 명실상부한 원자력산업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완료 시기가 대구경북통합공항 개항과 맞물리게 됨에 따라 항공물류 수요가 많은 바이오백신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올라가고 북부권역 발전을 한층 더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국도 36호선인 봉화~울진 4차로 재추진, 국도31호선 감포~양남, 국도14호선 양남~문무대왕 2차로개량, 국도34호선 풍산~서후 6차로확장, 영덕~삼척간 철도 조기 건설 등을 통해 기업의 물류수송 지원과 인근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는 지역수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원년으로서 준비된 자만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원자력산업과 수소 및 백신산업의 육성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반 산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경북의 산업지형이 완성된다고 봐도 된다"며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10년, 20년 뒤 경북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산업경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천안시 종축장 이전부지 '미래모빌리티 중심 국가산단', 국토부 신규 국가산단 선정

## 15일 국토부 발표...미래모빌리티 중심 첨단산업단지 조성

천안시는 성환읍 신방리 일원 국립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지 이전부지에 조성될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18개 지자체가 신청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유치산업 적합성, 수요확보 가능성, 지역 성장 잠재력, 정책적 타당성, 부지개발 가능성, 사업추진 용이성, 기업활동 편의성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발표했다.

천안은 수도권과 인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망이 우수하고 지역 대학과 더불어 인근 산업단지, 혁신·연구기관 등과의 연계가 가능해 중부권 최대 산업집적지로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는 데 가장 유리한 요건을 갖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지 전담 합평으로 이전한 부지 약 417만



㎡(126만평)에 총사업비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바이오, 스마트빌딩 등 국가전략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성환 종축장 이전이 2027년 예정되어 있으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사전에 완료해 2028년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대기업 유치 및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환경을 구축하고, 국가산업단지 배후 뉴타운 개발을 통한 신기술인력양성, 학교-기업 간 수요맞춤형 일자리 중심의 지원공간을 조성해 국가산단과 인근 뉴타운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가산업단지 배후 뉴타운은 국가·지역 연구기관, 민간연구소 등과 전문대학 유치를 통해 연구개발(R&D)과 교육, 상업, 주거 등의 지원기능을

갖춰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과 연계한 상업·업무·복합공간, 친환경 교통 시스템, 랜드마크 공원 등을 설치한다.

이번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 파급효과는 직접투자 7조7000억 원, 생산유발 14조2000억 원, 고용유발 5만 8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중심부에 조성되는 첨단 국가산업단지는 그동안 소외됐던 천안 북부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혁신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민 모두의 열정을 담아 대한민국 미래산업 메가트렌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역의 집적화된 기술과 역량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국가산단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인천시, 디지털 경제특구 선도 위해 두바이와 협력 모색

블록체인 산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특구 조성을 추진 중인 인천시가 두바이와의 글로벌 선도를 위해 협력을 모색한다.

인천광역시 3월 15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이 아랍에미리트(UAE) 산업·무역거래의 중심 정부기관으로 두바이복합상품센터(DMCC) 아흐메드 빈 술래암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10명과 만나 디지털 경제·블록체인 산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DMCC는 2002년 두바이 주메이라에키 타워 지구에 설립된 자유무역지대로 금융·금·다이아몬드·에너지·

커피 등 상품 무역 거래의 중심지다. 현재 180개 국가의 2만 1,000여 개 기업, 6만 5,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특히, DMCC 크립토 센터(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의 역할로 2022년 신규 등록된 기업 655곳 중 약 16%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유정복 시장과 아흐메드 빈 술래암 DMCC 의장은 디지털 경제 혁신도시 '인천 메타노믹스'블록체인 사업의 성공적 육성과 DMCC 자유구역 내 블록체인 산업의 성공 유치 노후유 등을 공유했다. 또, 앞으로도

DMCC 인프라, 블록체인 기술 기업 집적화, 제도개선 등 관련한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DMCC와 유사한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세계 147개 도시를 비행기로 3시간 안에 접근이 가능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과 외국기업, 국제경제단체 등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한 만큼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 기술을 갖춘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시는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

인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4개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개소, ▲블록체인 칼리지 운영(인재양성), ▲블록체인 해외·포럼 등 다양한 사업확장을 통해 지역 블록체인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와 DMCC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해 상호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천지역이 기업과 전문인력이 모여드는 블록체인 허브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 이하늬X이선균X공명 '킬링 로맨스', 죽여주는 텐션의 영화탄생 예고! 공식 보도스틸 공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색다른 텐션의 영화 '킬링 로맨스'가 오는 4월 14일(금) 개봉을 확정 짓고 공식 보도스틸을 공개한다. [감독: 이원석 | 배급: 롯데엔터테인먼트 | 출연: 이하늬, 이선균, 공명 등] 영화 '킬링 로맨스'는 섬나라 재벌 '조나단'(이선균)과 운명적 사랑에 빠져 돌연 은퇴를 선언한 톱스타 '여래'(이하늬)가 팬클럽 3기 출신 사수생 '범우'(공명)를 만나 기상천외한 컴백 작전을 모의하게 되는 이야기. 오는 4월 14일(금)에 개봉을 확정된 영화 '킬링 로맨스'는 제목처럼 로맨스의 기운은 짝 건너내고 웃음과 텐션이 넘치는 영화를 선보인다. 공개된 보도스틸에서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이하늬, 이선균, 공명의 비주얼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늬가 맡은 '여래' 역은 톱스타로 인기를 구가하던 중 발연기로 인해 국민 조롱거리로 전락하면서 은퇴를 결심하는 인물. 이선균이 분한 '조나단'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남태평양 '팔라'섬으로 입국한 여래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재벌이다.

디즈니 공주를 방불케 하는 이하늬의 화려한 비주얼과 아랍왕자 뺨도 너끈히 쳐버리는 이선균의 카리스마 있는 비주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들과 더불어 톱스타 여래의 3기 팬클럽 회원이자 S대만 고집하는 가풍에 못 이겨 고독한 입시 전쟁을 치르는 중인 사수생 '범우' 역은 공명이 맡았다.

'극한직업'에서 마약만 선후배로 호흡을 맞췄던 이하늬, 공명이 '킬링 로맨스'에서 배우와 전편으로 남다른 호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선균 역시 드라마 [파스타]에서 이하늬와 호흡을 맞췄던 바. 13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기대 된다.

한편 영화 '킬링 로맨스'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신선한 작품으로 바라 이어터한 시공간 판타지와 신선하고 기발한 각본과 연출이 돋보이는 영화로 '남자사용설명서'의 이원석 감독과 '뷰티 인사이드'의 박정애 작가가 손을 잡았다. '킬링 로맨스'는 오는 4월 14일(금) 개봉한다.



최만식/기자

홍행 돌풍 '더 퍼스트 슬램덩크', 누적 400만 관객 돌파! '슬램덩크 페스티벌' 개최 확정!

지난 1월 4일 개봉 이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며 역대 일본 영화 국내 흥행 기록을 차례로 갈아치워 온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3월 12일(일) 박스오피스 기준 누적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원작/각본/감독: 이노우에 다케히코 | 수입: 에스엠지홀딩스(주) | 배급: NEW | 개봉: 2023년 1월 4일]

지난 3월 5일(일) 개봉 61일 만에 380만 관객을 넘으며 역대 일본 영화 국내 흥행 1위에 오른 데 이어 400만 돌파까지 전후후무한 흥행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국내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고자 '슬램덩크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슬램덩크 페스티벌'은 4월 초 일본 성우의 내한 행사부터 주제가 '제 Zero감'을 부른 가수 10-FEET의 내한 라이브 이벤트까지 풍성한 콘텐츠로 관객들을 찾으며 팬들에게 그야말로 축제 같은 한 주를 선사할 전망이다.

'슬램덩크'의 마음을 설레게 할 '슬램덩크 페스티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추후 공식 SNS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전국 제패를 꿈꾸는 복산고 농구부 5인방의 꿈과 열정, 멈추지 않는 도전을 그린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황지원/기자

## '홍길동전' 우영 "시청률 4% 나오면 눈물과 소변이 함께 나올 듯" 시청률 상승 기원!

KBS2 목요일 예능의 전통을 계승하는 '홍길동전'에서 우영이 폭탄 발언을 한다.

매회 예청자들의 입소문 속에 화제를 모으는 KBS 2TV 예능 '홍길동전' (연출 박인석)의 9일 방송에서는 KBS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KBS 레전드 예능 오마주 특집으로 레전드 예능 '1박 2일'을 오마주한다.

이에 지난주 동전 던지기에서 뒷면 '홍진경 생가'가 선정된 후 멤버들과 스태프들은 평창동 홍진경 집에서 '1박 2일' 저녁 북불북을 펼치며 고급 저택에서의 굶주림 먹방을 선보인 바 있다.

'홍진경 생가'에서 첫날을 보낸 멤버들은 1박 2일의 시그니처 '잠자리 북불북'을 앞둔 상황. 이에 '홍길동전' 멤버들은 누가 야외 취침의 주인공이 될지 추측이 오간다.

저마다 나는 야외 거라며 야외 취침을 부정하는 사이 조세호는 "재미있는 그림은 집주인이 야외 취침하는 것"이라며 "어차피 야외 취침은 홍진경"이라며 홍진경 몰고 가기에 나선다.

이에 우영 역시 "진경 누나가 밖에서 자면 시청률 4% 나온다"라고 말한 데 이어 주우재가 "홍진경 생가에서 진경 누나가 야외 취침하면 시청률 오르지 않겠다"라며 홍진경의 야외 취침을 격하게 반겨 홍진경의 분노를

산다고.

그러나 이에 굴할 주우재가 아니다. 주우재는 "'홍길동전' 시청률 4% 나오면 눈물이 날 것 같다"라며 지난 방송에서 오열한 주우재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주우재의 시청률 기원 발언에 우영은 "저는 시청률 4% 나오면 눈물과 소변이 함께 나올 것 같다"라고 폭탄 발언을 던져 웃음미를 폭발시켰다는 전언이다.

그 순간 우영의 멘트를 상상해 버린 주우재는 "그건 요실금 아니야?"라고 한 데 이어 조세호는 "그 정도면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니?"라며 막내 우영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해 '홍길동전' 멤버들을 폭소케 한다.

이에 대해 '홍길동전' 제작진은 "멤버들이 시청률 상승을 위한 에너지가 대단하다"라며 "멤버들은너나 할 것 없이 녹화를 할때마다 온몸을 던져서 촬영에 임하는데 이번 주는 그중 최고의 한주가 될 것이다. 멤버들의 특급 케미를 기대해 달라"고 말해 기대를 높였다.

홍진경 생가 투어 2번째 방송은 오는 16일(목)에 공개된다. '동전 던지기'에 웃고 우는 KBS 2TV '홍길동전'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 방송된다.

정동희/기자



## 박지현, '미스터트롯2' 준결승 최종 2위... "깜빡이를 켜주세요" 등 모든 경연곡 음원차트 진입

박지현이 '미스터트롯2'의 음원강자로 주목받으며 다재다능한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눈부신 비주얼과 시원시원한 활어 보이스, 이에 못지않은 댄스 실력까지 갖추며 트롯계의 '팔방미인'으로 불리는 박지현은 부르는 곡마다 즉석 차트진입을 성공하며 미스터트롯2의 '음원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마스터 예심에서부터 올하트를 획득하며 매화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박지현은 2023년 11주차 기준 멜론차트에서 트로트 차트 5곡 등 총 5회 차트에 올랐다.

지난 본선 4차 라이브전에서 부른 '거문고야'가 19위, 마스터 예심에서 부른 '못난놈'이 29위, 준결승전에서 부른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가 90위, 본선 3차전의 '대전 부르스' 92위까지. 그동안 경연에서 선보인 모든 곡들이 차트 진입에 성공했다.

지난 준결승전에서 박지현은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무대로 발랄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선사하며 작곡가 신



곡 미션 마스터 점수 최고 99점, 최저 87점을 획득했다.

이어진 준결승전 최종 결과 발표 시간에 마스터 총점 1144점, 실시간 문자 투표 541.03점을 기록하며 최종 1685.03점으로 2위를 기록해 결승행을 확정 지었다.

모든 무대에서 뛰어난 실력과 비주얼을 자랑하며 이미 수많은 팬들을 접수한 박지현의 팬카페 가입자는 오늘 15일 기준 가입자 7천여 명을 넘

어서며 높은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음원 강자'로 주목받으며 대형 팬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박지현이 트롯 '眞'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결승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한편, 박지현은 '미스터트롯2' 준결승전에서 최종 2위를 했으며, '미스터트롯2' 결승전 생방송은 오는 16일 밤 9시 30분에 TV조선에서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 영화 '드림' 박서준 X 이지은 X 이병헌 감독의 첫 만남! 4월 26일 개봉 확정! 런칭 포스터 공개!

신선한 소재와 유쾌한 재미로 남녀노소 관객을 사로잡은 이병헌 감독의 4년 만의 신작이자 박서준, 이지은의 첫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드림'이 오는 4월 26일 개봉을 확정 짓고, 런칭 포스터와 드림팀 명단 발표 영상을 공개했다. [제공/배급: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 감독: 이병헌]

'드림'은 개념 없는 전직 축구선수 '홍대'(박서준)와 열정 없는 PD '소민'(이지은)이 집 없는 오합지졸 국대 선수들과 함께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1,626만 관객을 사로잡은 영화 '극한직업'에 이어 뜨거운 팬덤을 형성했던 드라마 [멜로가 체질]까지 특유의 찰진 대사와 매력 넘치는 캐릭터, 공감대를 자극하는 스토리로 호평 받은 이병헌 감독이 '드림'으로 4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온다.

2010년 대한민국이 첫 출전했던 홈리스 월드컵 실화를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된 영화 '드림'은 매 출연작에서 인생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 대세 배우 박서준, 이지은의 첫 만남으로 뜨거운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김중수, 고창석, 정승길, 이현우, 양현민, 황완표, 허준석에 이르기까지 단단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이 합세해 완벽한 드림팀을 완성했다.



4월 26일 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된 '드림'의 런칭 포스터는 싱그러운 초록의 그라운드 위로 경기 시작을 앞두고 축구공을 중심으로 선수들이 발을 맞대고 있는 비주얼로 경쾌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환상의 케미스트리가 온다! 드림팀 명단 발표 영상 공개!

포스터와 함께 공개된 드림팀 명단 발표 영상은 2023년 가장 유쾌한 케미스트리를 선보일 캐릭터 군단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개념 없는 감독 '홍대' 역의 박서준과 열정 없는 PD '소민' 역의 이지은은 관객의 공감대를 자극할 현실감 넘치는 캐릭터로 변신, 모두가 기대려온 꿈의 조합이 발산하는 신선한 에너지로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것이다.

여기에 울드보이 '환동' 역의 김중

수, 핵공명 역의 고창석, 반칙왕 '범수' 역의 정승길, 한국산 호랑이 '인선' 역의 이현우, 앵그리 키퍼 '문수' 역의 양현민, 밀림의 왕 '영진' 역의 황완표, 궁정파워 사무국장 '인국' 역의 허준석까지 개성 넘치는 배우들의 라인업으로 완성된 드림팀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활약을 펼쳐며 대체 불가능한 시너지를 발산할 예정이다.

이렇듯 런칭 포스터와 드림팀 명단 발표 영상을 공개하며 올해 가장 매력 넘치는 캐릭터들의 케미를 예고한 '드림'은 꿈을 향한 특별한 도전을 담은 이야기로 전 세대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병헌 감독과 박서준, 이지은을 비롯해 캐릭터와 완벽한 싱크로율의 국내급 배우들의 조합이 더해진 영화 '드림'은 오는 4월 26일 개봉을 확정하며 올 봄 극장가 최고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황지원/기자

## '패밀리' 장혁-장나라, 한 지붕 아래 아슬아슬 이중생활! 티저 포스터 첫 공개!

tvN 새 월화드라마 '패밀리' 장혁과 장나라의 한 지붕 아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이 담긴 티저 포스터가 공개돼 흥미를 자극한다.

오는 4월 17일(월) 첫 방송하는 tvN 새 월화드라마 '패밀리'(연출 장정도 | 정목/극본 정유선/제작 스튜디오 드래곤 (주)아이엠티브이)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국정원 블랙 요원 남편과 완벽한 가족을 꿈꾸는 달콤살벌한 아내의 아슬아슬한 가족 사수 첩보 코미디.

드라마 '라이브', '김비서가 왜 그럴까', '왕이 된 남자', '우리들의 블루스', '환혼', '아일랜드' 등 다수의 흥행작을 총괄 프로듀싱했던 장정도 EP(Executive Producer)가 연출을 맡고 '홍행 잭팟 황금 조합' 장혁과 장나라가 함께하는 네 번째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극 중 장혁은 집 밖에선 무역사사 과장으로 신분을 위장한 원샷원킬의 국정원 블랙 요원이지만 집 안에서는 서열 최하위인 주구리 남편 '권도훈' 역을, 장나라는 가족 내 서열 1위인 '힘숨전'(힘을 숨긴 전고수) 주부 9단 '강유라' 역을 맡았다. 두 사람은 네 번째 호흡을 맞추는 만큼 한층 쫄득하고 맛깔스러운 케미스트리로 시청자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15일(수) '패밀리' 측이 권도훈, 강유라 부부의 투사이 담긴 티저 포스터를 공개해 관심을 높인다. 공개된 포스터 속 권도훈은 날렵한 강유라의 눈을 피해 다림판 밑 사각지대에 숨어 총을 장전하고 있다. 편안한 생활복 차림과 어울리지 않는, 경계 태세를 갖춘 날카로운 눈빛과 표정에서 강렬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와 권도훈이 집 안팎에

서 보여줄 반전 면모에 대한 호기심을 끌어올린다.

반면 강유라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상기시키듯 다림판 아래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기계적으로 다림질을 하는 손놀림에서 주부 9단 면모가 엿보인다.

특히 '평범한 가족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이라는 카피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위장한 블랙 요원 권도훈과 가족 내 서열 1위 강유라의 한 지붕 아래 이중생활로 펼쳐질 상황과 웃음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에 포스터만으로도 황금 케미를 내뿜는 두 사람이 그려갈 '패밀리' 본 방송에 관심이 증폭된다.

한편 tvN 새 월화드라마 '패밀리'는 오는 4월 17일(월) 저녁 8시 50분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정동희/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 봄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

## 4월 말까지 관내 193개 사업장 점검 예정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건축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미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덕양구는 특히 덕은, 향동, 지축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과 토목공사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상습 민원 유발 사

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덕양구 관내 193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사업장 주변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에 관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매달 첫째 주 화요일 덕양구청 지상주차장에서 배출가스 무료점

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차 비디오파라미터 측정 및 대형 경유차 차고지 매연측정을 확대 실시하여 매연 배출 경유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비산먼지 및 초미세먼지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대형 공사장과 골재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확대하고, 시공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을 위해 업체 관계자 교육과 계도 등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 영암군, “쓰레기 불법투기, 꼼짝마”

##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등 쓰레기 불법투기 연일 강력 대처

영암군이 지난 1월부터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등을 대상으로 새벽 및 야간 시간대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엄정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한차례의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조선산업의 호황세 전환에 따른 내·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유입과 배달음식 및 택배물량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삼호읍 대불주거단지는 무분별한 불법투기 사례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감을 주었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을 5개 권역으로 지정하고 4인 1조 5개 단속반을 편성해 1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왔으나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 봉투에 담아 무단투기하는 등의 행태가 여전히 만연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새벽 및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암경찰서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특히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어서 대불주거단지 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인식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집중 단속의 결과 현재까지 현지 계도 38건의 불법투기 7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당 지역을 비롯한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현/기자

# 인천시 부평구, 불법튜닝 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

인천시 부평구는 13일 갈산역과 굴포천역, 부개역 등에서 불법튜닝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은 교통안전저해 예방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부평구청과 인천시청,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직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 7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 변경 사항으로, 등화장치 임의 설치, 이륜차(오토바이) 굉음 발생 튜닝,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변경 등이다.

합동 단속반은 이날 총 15건을 적발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3건은 경찰서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처분, 1건은 자진이동 안내문 부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9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우선 차량소유자들이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시민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튜닝 자동차 민원이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따라 많이 축소됐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튜닝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 안성시,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 추진

안성시는 봄철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을 대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미세먼지 발생에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3월 한달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감시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실시하며 불법소각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발생 감소를 위해 축분 퇴비공장 및 축산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이동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살수차와 분진흡입차 운영을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과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장착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예비저감조치 시간을 연장(06~21시 → 06시~익일 06시)하고 예비비상저감조치 후 즉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아양1로와 아양2로 약 2.5km 구간에 자동 물분사 시스템(클린 앤 쿨링로드)조성사업, 미세먼



지 쉼터(버스정류장형) 등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을 추진중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인근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저감 특화사업을 추진중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인근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조혜영/기자

# 광주 서구, 봄철 취약시기 대형산불 총력 대응

## 산불 특별대책 기간 비상근무 돌입...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 금지 당부

광주광역시 서구가 봄철 취약시기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서구는 산불제단 국가위기경보 '경계'상향에 따라 4월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했다.

서구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농산 부산물소각에 의한 산불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책임담당제 및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인접지와 농경지 주변 소각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서구는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중앙공원, 금당산 등 주요 등산로에 산불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 예방활동과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야간에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순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유사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의 초동진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더라도 공공을 위협에 빠뜨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서구청 공원녹지와 관계자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실화로,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소각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 증평군,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증평군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학교 주변 공사장 통행로 안전관리 확인 △주변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단속 △학교 매점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점검 △불법 광고품 단속 및 일제정비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점검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 놀이 시설 분야는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 관리 상태와 키즈 카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법’ 상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인 설



치 정기검사,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등의 안전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 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양양군, ‘청소년유해환경 OUT’ 지도단속 캠페인 펼친다

## 14일부터 2일간 청소년보호법상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집중단속

양양군이 개학기를 맞아 14일부터 2일간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단속 캠페인을 추진한다.

군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에 위치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점검과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년지도사 등 관계 공무원들을 전담반으로 꾸려, 학교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주변 노래방, 유흥업소, 편의점, 식당 등을 대상으로 위해요인 안전점검과 ‘청소년보호법’상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 리플릿을 배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노래방과 PC방 등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19세 미만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신분증 확인 생활화에 대해 집중 점검·계도한다.

점검 결과,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5월 청소년의 달, 여름



휴가철, 수능 전후 등 시기별로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학교주변 유해환경 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의식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동참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창원특레시 “지붕 뚫린 버스 타고 진해군항제 벚꽃 만끽해요”

### 3.24~4.3 진해군항제 기간 창원시투어버스 ‘벚꽃 특별노선’ 운행

창원특레시는 진해군항제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진해구 주요 벚꽃 명소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특별노선을 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4년 만에 열리는 진해군항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교통 혼잡, 주차난 등 관광객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제 기간에만 진해 벚꽃 명소를 도는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시티투어버스는 평일에는 9시 30분, 10시, 11시 30분, 12시, 13시 30분, 14시, 15시 30분, 16시에 진해역 앞 임시 정류장에서 출발해 진해루, 진해해양공원, 경화역을 거쳐 다시 진해역으로 온다. 하루에 8회 운행하며, 회당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주말에는 평일 노선에서 진해해양공원을 빼고 운행한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 간격으로 16회, 회당 소요 시간은 50분이다.

중점인 진해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



여좌천, 8분이면 군항제 주요 행사장인 중원로터리까지 닿을 수 있어 진해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알차게 벚꽃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창원시투어버스는 지붕의 반이 개방된 하프 탑(Half Top) 형태

로, 천장이 뚫린 뒷좌석에 앉으면 시원한 바람에 흠날리는 벚꽃비를 맞을 수 있다.

기존에 창원 주요 관광지를 도는 순환 노선은 이 기간 운행하지 않는다.

별도 예약 없이 진해역에서 탑승권

을 구매 후 탑승하면 된다. 탑승권 한 장으로 온종일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다.

요금은 성인 3000원, 만 19세 미만 청소년·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은 2000원,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는 무료다.

시는 특별노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경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시티투어버스 탑승 인증 사진을 해시태그(#창원시투어팔팔인증, #진해군항제, #진해벚꽃 #창원시투어버스)와 함께 올리면 추첨을 거쳐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준다.

김중문 창원특레시 관광과장은 “무려 3년을 건너뛰어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 벚꽃축제인 만큼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렘을 품고 창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좋은 추억만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비롯한 축제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 서귀포시, 제40회 서귀포 유채꽃 축제 개최



서귀포시는 유채꽃 향기와 함께 서귀포의 봄을 만끽하는 제40회 서귀포 유채꽃 축제'가슴 설레는 시간, 봄이 오는 소리'를 주제로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유채꽃광장 일대에서 개최한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유채꽃 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기존 제주유채꽃축제에서 서귀포유채꽃 축제로 재탄생, 축제 명칭을 변경하여 '서귀포' 지역을 각인시키는 홍보 효과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4년 만에 현장 대면 행사로 열린다.

축제 프로그램은 첫째 날 가시리마을 동아리팀들이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세리머니 플래시몹과 축하공연, 버스킹이 열리며, 둘째, 셋째 날에도 초청 및 버스킹 등 무대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약 3만평(94,901m)에 달하는 유채꽃광장 체험(포토존 9개) 및 원데이 클래스(체험 8종) 등의 다양한 체험, 홍보, 판매판도 축제 기간에 운

영되며, 방문객 편의시설(쉼터 10개소, 이동식 화장실 등)도 강화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인위적인 시설을 조성하고 대규모 공연을 최소화하여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여유로움을 즐기는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가시리 녹산로 일대 유채꽃 파종기별 기관(부서) 협력체계를 구축, 추진하는 이번 안전관리는 녹산로 도로변 갓길 곳곳에 주정차 금지 홍보물 설치 및 차량, 도보 순찰 등 계도 활동을 통한 '드라이브인 꽃 구경'을 유도해 나가며, 유채꽃광장은 출입구 지정관리와 현장 질서유지, 안전취약지구 순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인원은 축제 기간 1일 36명, 축제 기간 이외(3.25~4.16)에는 14명의 안전관리 인력이 현장별 배치되어 운영된다.

황지원기자

# 경기문화재단, 2023 소장품전 《잘 지내나요?》 개막

### 노재운, 양아치, 함양아 경기도미술관 소장작가 3팀의 작품과 양순열, 콜렉티브 안녕(이안리+임유영) 초청작가 2팀의 작품 총 12점 전시

### 영천시, 별빛촌장터 3월 봄맞이 행사

### 봄과 함께 영천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으로 즐겨보세요

영천시는 생동하는 봄을 맞아 지난 8일을 시작으로 3월 31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별빛촌장터(01000yc.go.kr)'에서 봄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행사 기간 중 별빛촌장터의 사인머스켓, 한우, 와인을 비롯한 다양한 농특산물 약 70여 품목을 구매할 고객들에게 최대 5천원의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이와 함께 3월 8일에서 5월 7일까지 네이버 스마트채널과 카카오 비즈보드 등을 통해 별빛촌 쇼핑몰을 홍보하고 있어 배너를 통한 별빛촌장터 쇼핑몰 방문과 행사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별빛촌장터는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와 지역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영천시가 2002년 개설해 현재 170여개 농가(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포도, 사과, 복숭아, 전동장, 쌀 등 다양한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영천에 주소를 두고 영천에서 생산·가공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생산자단체는 누구나 입점할 수 있으며, 별빛촌장터에 입점한 지역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는 영천시가 택배비와 적당금을 지원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봄맞이 할인행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과 영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별빛촌장터가 농촌과 도시를 이어주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하는 건전한 소비장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행사기간: 2023. 3. 8. ~ 3. 31.(24일간)**

**2023년 별빛촌장터 봄맞이 행사**

**구매금액별 할인쿠폰 지급**

- 5만원 이상 구매시 5,000원 쿠폰
- 3만원 이상 구매시 3,000원 쿠폰
- 1만원 이상 구매시 1,000원 쿠폰

\* 주유시 1만원 쿠폰 1장 발급  
\* 배송완료 후 주문자 발송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안미희)은 2023년 3월 16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2023년 소장품전 《잘 지내나요?》를 개최한다. 《잘 지내나요?》는 경기도미술관의 15년 소장품들을 수집하면서 '위로'와 관련된 작품들을 다시 소환하고자 한다. 《잘 지내나요?》는 예술보다 훨씬 강력하고 비루한 일상을 보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위로의 방식을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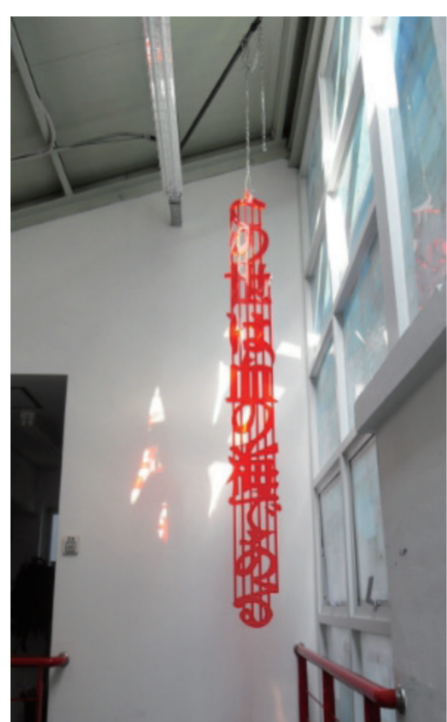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어디든 완벽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재난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현재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재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재, 재난은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에 따르는 상처, 불안, 두려움, 공포, 외로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전시에서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시도해온 노재운, 양아치, 함양아(소장작가)가 지속해 온

예술의 순수함과 시대에 깨어 있고자 하는 예술가의 치열함에 대해 소개한다. 양순열, 콜렉티브 안녕(초청작가)의 작품에서는 예술이 일상의 경험을 포착하는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위로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들의 작품을 통해 인간이 가진 순수성을 회복하며, 위로받고자 하는 인간의 어린아이 같은 순간과 만나기를 기대한다.

이 전시는 과연 진정한 위로는 존재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타인에게 가지는 사나운 애착,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타인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고 싶은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찬미하고자 애쓰고 있음을, 현대미술 작품과 시(時)를 매개로, 예술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함께 공명하는 시간을 통해 “잘 지내나요?”라는 인사로 안부를 묻는다.

조혜영기자



▲ '이 세상은 피의 바다' The World is a Sea of Blood(노재운 작)

# 구례군, '산수유 축제와 함께하는 삼대삼미 구례 5일시장 한마당' 개최

### 구례 5일시장 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한 오감만족 행사

전남 구례군은 군 대표 축제인 '산수유 축제'와 더불어 구례 5일 시장 안에서 '산수유 축제와 함께하는 삼대삼미 구례 5일 시장 한마당' 행사를 3월 18일 11시 5일시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수유 축제와 함께하는 삼대삼미 구례 5일 시장 한마당 행사는 2020년에 선정된 구례읍 중심시가 지형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삼대삼미 주민협의체가 주관하고, 구례군과 구례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주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난타 문필자팀, 좌도 전수 농악, 아리랑 장구, 실버악단 등 구례읍에서 활동하는 단체 및 동아리가 직접 참여하여 구례 5일시장을 방문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축제 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구례읍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구례읍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산수유 축제와 함께하는 삼대삼미 구례 5일시장 한마당**

**2023. 3. 18(토)**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 작은길 20 (구례 5일시장 내 야외공연장)

공연 행사 시간: 11:00~14:15

- 난타 문필자팀
- 좌도 전수 농악
- 아리랑 장구
- 실버악단(전수, 농악)

주최: 구례군, 구례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관: 구례읍 도시재생사업추진위원회

# 순천에 올라오면 정원에서 쉬GO, 도심에서 즐기GO!

순천시는 2023년 문화가 행복을 누리는 일류순천을 목표로,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박람회 기간 중 도심 전체를 문화예술의 향기로 가득 채울 계획이다.

박람회장, 도심 주요 거점 및 관광지 일원을 중심으로 정원박람회와 문화예술을 융합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으로 관람객 유치 및 방문객을 도심으로 유입하여 박람회장과 도심 곳곳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지역예술인 주도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지원으로 신진예술인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관람자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예술 공연을 창작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항문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은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지역예술인 주도로 운영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공연 운영시스템이다. 2013년부터 지역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 무대 공연 참여와 재정 지원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성장 발판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해는 400회 정도 공연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정원박람회 봄예 조성을 위해 공연을 1,000회로 확대하여 지역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참여형 문화예술행사를 중점 지원하고 공연문화 확산, 지역의 우수한 신진예술인 발굴을 위해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 ▲학교예술 국악지원 ▲지역대표 문인 관련 기념행사 등 133개 사업에 대해 19억2백만원의 지원할 계획이다.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박람회장 및 주요 거점에 고품질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로 관람객에게 쉽고 힐링을 제공한다.

국가정원에서는 오는 3월부터 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박람회 개막 100일 기념 '가든뮤직페스티벌'을 박람회 조직위원회 기획공연인 'EDM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국내 정상급 K-POP 가수공연, 유명 DJ진행 EDM 콘서트, 불꽃과 레이저를 이용한 퍼포먼스 쇼 등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지원한다.

국가정원 일일 및 메가박스, CGV 등 시내 곳곳에서는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영화축제인 '제1회남도영화제'를 개최해 약 25개국 80편의 영화를 상영하여 최고의 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남도영화제는 전남 최

초 유일 영화제로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외부 박람회장 거점 장소에서는 전문예술인 및 지역예술인이 함께하는 ▲박람회 Live 보이에는 라디오 ▲제2회 정원예술제 ▲제26회 전국 팔마고수대회와 가족창극 순천만 수궁가 ▲제2회 순천만 갈대청 한마당 ▲제5회남도 명인 명창 국악의 향연 등 지역예술작품 소개 및 남도의 소리와 맛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국악 공연을 펼친다.

이 밖에도 국가정원 일일에서는 4월 중 아름다운 동행, 응비하는 영호남이라는 주제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제'를 개최하여 영호남 상생협력을 넘어 지역 간 문화예술 및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화합 대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8월에는 국가정원 습지센터에서 '제8회 남해안남권 문화예술제'를 개최하여 영호남 9개 지역 민간예술단체들이 해당 지역 작품 전시로 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지역예술인 주도의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심 곳곳이 공연장이고, 시민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박람회 방문객을 도심으로 유인하기 위해 원도심 곳곳에도 매일 메가급 행사를 개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4월부터 원도심, 문화의 거리, 남문터 광장, 중앙로, 시민로에서는 플리마켓과 버스킹 등 상설 문화행사 및 공연 프로그램을 매주 실시하고, 도심의 주요 거점 순천역, 종합버스터미널, 조례호수공원에서 아고라순천 공연팀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버스킹공연으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오는 8월에는 한여름 물축제 및 야간문화 관광, 9월에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전남문예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0월에는 팔마문화제 및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 개최로 다양한 거리공연과 순천의 먹거리를 선사할 것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공연 확대 및 신진예술인발굴, 소외계층 지원으로 누구나 문화의 향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박람회 기간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상에 문화가 흐르는 웰니스 창의 문화도시 일류 순천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덕암 칼럼]

다시 새겨야 할 민주주의

자유가 넘친다. 아예 방종을 넘어 무질서에 이를 만큼 윤리도 상식도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필자만의 견해일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만큼 국론은 양분되고 저출산에 실업대란은 수습이 불가할 만큼 난무한다.

이러라고 목숨 걸고 대한민국의 구국에 젊은 피를 수혈했던가. 1960년 3월 8일,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이날은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불법·부정선거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의 날이었다.

이날은 4·19혁명을 이끈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으며 지난 2018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날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였으며 불법적 인권유린도 성행했던 시절이었다.

대전지역 고등학생 1,000명이 시민들의 환호속에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던 날이며 최근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팻말을 들고 서울 광화문을 메우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대전고, 대전상고, 대전공고, 보문고 등 4개 학교 학생들이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다 100명도 넘는 학생들이 구속됐다. 군인들의 개머리판으로 인한 폭행이 난무했던가 하면 경찰의 곤봉 세례속에 부상자가 속출했다.

역사는 그렇게 피로 얼룩진 희생을 치르면서 조금씩 민주화를 향해 걸음마를 옮긴 것이며 지금 누리는 자유는 참으로 값진 호강이다. 팔순의 노년이 된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민주화에 대한 간절한 바람은 이제 빛바랜 낡은 역사에 국한될지라도 우리 후손들이 감사하고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 애써 얻은 자유는 박정희 前 대통령의 오랜 독재 속에 경제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공이 남았고 이후 다시 총칼에 의해 군인의 정치권 진입으로 남산의 서빙고 분실이나 공안정국의 칼바람은 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희생을 전제로 성장했던가.

최루탄 가스가 매캐한 대학캠퍼스의 교정에는 시대만 바뀌었지 여전히 곤봉세례와 군화발에 구타가 만연했다. 말보다 폭력이 더 빠르고 통치의 수단이었던 시절, 민주화의 열망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때는 부정선거와 군부독재라서 그렇다 치자. 지금은 어째서 이 난리일까. 아침에 일어나서 골목길을 빙글 돌아다니며 자루로 쓸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몸으로 움직이며 생산 활동에 여념이 없었던 시절이었으며 지금처럼 의료 시설이 많은 것도 아닌데 중병이 아닌 다음에야 환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언제부터 침대 쓰고 양변기 화장실 사용했으며 싱크대에 고춧가루에 살았던가. 물론 시대적 발전은 문명의 혜택이며 당연한 것이지만 서양에서 검증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벌어져 한국인들 고유의 가치는 소리없이 사라졌다.

그 실종의 이면에 성숙한 자유가 자리잡기도 전에 방만한 나태로 이어져 버린 것이다. 이제는 수습이 안 된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한때 국가부흥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시기의 젊은이들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폐지를 줍기에도 빠듯한 삶을 살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몇몇 정치인들이 망쳐 놓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정인을 우상화시켜놓은 몇몇 정치인들, 지역감정을 조장해 대대손손 민주화라는 가면을 쓰고 진정된 민주열사를 제쳐놓은 채 온갖 명분으로 국가 예산을 무한정 편성하여 그들의 성지로 만들고 나머지는 모두 희생되어야 하는 계층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그러하다.

특정인의 지적이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에는 너무나 탄탄하게 굳어버린 민주화의 퇴색은 오늘같이 스산한 찬바람처럼 우리 민족의 모든 순수함에 한기를 느끼게 한다. 너무 멀리 왔다.

다시 돌이키기에는 진정한 민주화가 무엇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특정 세력의 기반은 탄탄해졌다. 어쩌다 우파·좌파로 구분되고 보수와 진보가 마치 흑백논리로 대립하는 구조가 되었을까.

자신의 의견이 소중하면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주는 배려라고는 눈곱만 큼도 없는 독선과 아집의 시대가 됐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실은 무엇이며 광주민주화에 대한 성역화와 예

산편성을 밝히려는 일부 여당의 의견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역사는 흐른다. 적어도 수십 년 처박아 놓았다가 당사자가 백골이 된 다음에야 겨우 밝혀지는 민주화의 공로가 무슨 소용일까. 필자는 티끌만한 존재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모든 날들을 기록만 할 뿐이다.

어쩌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겨우 턱걸이하는 중대한 시기에 많은 국민들의 근로의욕과 삶에 대한 열정, 꿈과 희망이 실종되었는지도 적을 뿐이다. 해결책도 제시하며 미뤄 집착할 수 있는 모든 염려를 기록만 할 뿐이다.

마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듯 언젠가는 지금의 방종과 양분된 국론과 무너지는 윤리가 바로 설치할 수 없으나 영원한 내리막은 없는 것이다. 그 과도기가 내란이든 질병이든 외세에 의한 전염이든 거쳐야 할 것이고 지금처럼 굶어서는 스스로 해결될 기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 사람뿐이라. 소금이 염기를 잃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습한 곳이면 어디든 곰팡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사람 사는 사회가 지도층의 부패로 신진함이 실종되면 아부하는 부류와 공생하는 몇몇은 살만하겠지만 절대다수의 경제적·정신적 희생은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023년 지금의 현실을 누가 감히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것은 아니다 싶을 만큼 상식과 질서와 배려가 실종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어디에도 양보라곤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으며 세금으로 편성된 각종 예산은 눈먼 돈이 되어 먼저 먹는 게 임자인 나라가 되었을까.

63년 전 민주화를 위해 희생을 치렀던 당시의 고등학생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그저 송구할 따름이다. 며칠 전에 전국적으로 제3회 조합장선거가 치러졌다. 이 또한 권력층으로 구분되는데 금융에도 민주화가 필요했다.

결פת하면 불거지는 조합장의 직권 남용과 부패소식이 자유에 대한 조절이 필요함을 알게 했다. 부패는 개인의 이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즉,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박근종 칼럼]

수출 부진 장기심화, 반도체 수출 활로 개척에 국가역량 총력 경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부진에 따른 무역적자가 갈수록 심해지고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벌써 227억 달러를 넘었다. 지난 3월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1일 ~ 3월 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무역적자 규모는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불과 열흘 동안 49억 9,500만 달러나 크게 불어났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70일간의 무역적자가 총 227억 7,5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472억 3,000만 달러의 약 48.2%에 이른다.

우리 경제의 무역수지를 불과 70일 사이 전년도 적자의 절반의 적자 늘에 빠뜨린 주요 요인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시장 불황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위축이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반도체 수출이 22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2%나 급감하고 대중국 수출도 31억 7,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3%나 쪼그라들면서 올해 들어 수출액은 1,122억 8,600만 달러로 16.2%나 줄었다. 매달 나오는 수출입 통계를 보기가 겁날 지경에 이르렀다.

자산 규모 2,090억 달러(약 276조 5,000억 원)로 미국 내에서 16위의 40년 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쇼크와 겹쳐 위축된 투자·소비심리를 더 떨어뜨릴 것이다.

역시 반도체를 위시한 주력 품목의 수출감소세와 대중국 수출 위축이 은 최악의 참사다.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른 '리오프닝(Reopening | 경제 활동 재개) 효과'에 기대를 했지만, 대중국 적자만 14억 달러를 넘어섰으니 수출의 양과 질 모두 급격히 나빠졌다. 이 와중에도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다.

무역수지 경고음이 더 커진 셈이다.

우리 경제의 무역수지는 작년 3월부터 12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1년 이상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 ~ 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는 부진하지만 하반기엔 회복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예측했지만, 중국의 경기 부진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리오프닝(Reopening)'과 무관하게 악화일로다.

얼천 데 들친 격으로 미국 SVB의 파산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한층 고조시키면서 실물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낙관론과 달리 글로벌 경제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 이렇다 보니 하반기까지 침체가 계속되는 '상저하저(上低下低)'의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게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나마 SVB 파산 사태는 다행히도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지난 3월 12일(현지 시각) SVB 고객 예금 전액을 지급 보장키로 하면서 '뱅크런(Bank run | 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스타트업 업계의 자금줄 축소 걱정은 여전하다. 국내 금융·투자시장에도 좋을 일이 없다. 더 큰 걱정은 구조적 문제처럼 심각해지는 무역적자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수출의 플러스 전환을 위해 대하고 미래차 기술에 대한 세계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 활성화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놴다.

하지만 짜낸다고 짜낸 이런 노

력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더구나 SVB 파산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시장 변동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사태가 다시 악화될 뻔·달러 환율이 또 치솟으면 수입 급증 이상의 악조건이 펼쳐진다.

특정이 아무리 커져도 뾰족한 특약이라 할만한 단기대책이 없다는 게 지금의 수출 급감과 무역수지 악화의 현실적 당면과제다.

'상저하고(上低下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깔린 천수답 대책으로는 증폭되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글로벌 패권 전쟁과 경기 불확실성의 이중 파고를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그래도 수출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묘책은 제1의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지원 확대다. 법적 제도적 방안은 이미 나올 만큼 충분히 나와 있다.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되면 대외 신인도 악화와 외국 자본 유출로 이어져 우리 경제는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무역적자 급증의 심각성을 통찰하고 수출 진흥을 위한 비상한 특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신성장 동력 발굴, 규제 혁파 등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가역량을 집중(集注)하여 총력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당리당락을 접고 초당적 비상한 각오와 결연한 태세로 총력 지원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의 결을 서두르고 수출 결집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 사슬부터 과감히 혁파하여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 | 기초체력)」을 키우는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서두르고 총력 경주해야 한다.





경북의심<sup>으로</sup>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 경상북도로 기부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풍성한 답례품은 덤으로!

**기부지역**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모든 시도 / 시군에 기부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까지

- 기부혜택**
- ①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분은 16.5% 세액공제
  - ② 답례품 증정 • 기부액의 30% 범위 내 선택

### 기부방법 ①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www.ilovegohyang.go.kr](http://www.ilovegohyang.go.kr)



가입

준비물  
PC, 휴대폰



기부하기



위택스 결제

계좌이체  
또는 카드



답례품 선택

※ 위택스 사전가입 필수

### 기부방법 ②

NH농협 방문 신청



농협 방문 신청

준비물  
신분증



신청서 작성



현장 결제

계좌이체  
또는 현금



답례품 선택

※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모여진 기부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 생계지원**과 **청소년 육성** 등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여집니다.

문의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 054-880-2836, 2838